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2009 12.16
No.41(통권 142호)
특목高 바로잡고 일반高 수준 높인다
햅쌀로 빚은 '막걸리 누보' 나왔다
자전거에 실려온 외나로도 노래편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A to Z
나누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로

실내 온도
18 ~ 20℃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

세계가 놀란 '태안의 기적' 자원봉사 생활화 자리매김

김준목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장

우리 사회는 지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공동체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긍정적인 사회적 욕구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늘고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은퇴자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가족 단위 여가문화를 자원봉사활동에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은 지역사회,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다각도로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사회 변화에 직면해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확산, 다양한 색채의 정치개혁운동,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봉사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5·31 교육개혁안(1995년)'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학습이 의무화되고,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해 현재 16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2백32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규모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 배치하게 됐고, 2002년 한일월드컵이 기폭제가 되어 현재는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엑스포, 박람회, 도시축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필수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관이 협력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도록 지원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

지난해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자원봉사활동에 1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태안의 기적'은 전 세계가 놀라고 주목하였음은 물론 자원봉사가 이제 종교와 정치,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국민통합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흔히 '자원봉사 생활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활동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누군가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사람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를 말한다. 사실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기까지는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의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사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없는 시간을 쪼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치 내 일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함께하는 공동체사회로의 출발점으로 자원봉사를 이야기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의 꿈과 희망의 대안 에너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국격(國格)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숭고한 자원봉사활동이 국력을 높이고 국가 경영이나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자발성, 자율성, 민간 주도라는 자원봉사의 소중한 핵심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G

기 · 획 · 특 · 집

26

봉사로 하나 되는 희망 대한민국

기적에 목말라하는 세상,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곤 한다.
검은 재앙이 넘나들던 태안의 바닷가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회복지의 그늘 곳곳에도….
자원봉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껴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누구나 희망 품고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작은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12월 11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분들과 그 가족 등 1백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대통령은 나눔은 자기가 가진 작은 것도 남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숨은 기부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를 계속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을 계기로 2010년에 국내 나눔문화도 더욱 확산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08

56

발행일 2009.12.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40호(12월 9일자) '생활공감-속 터지는 ARS 확 바뀐다'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용자 편의가 우선돼야 할 ARS가 그동안 공급자 편의 위주로 운영돼온 감이 없지 않다. 긴급서비스가 필요할 때도 그렇고,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서툰 노인들에게도 그동안 ARS는 절차가 복잡하고 송신자 요금부담을 요구해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사람들이 ARS를 멀리하게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ARS 운영개선 지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_ 전경욱

"너무 긴 대기시간, 너무 많은 메뉴 버튼, 업체마다 다른 상담원 연결번호 등 불편하고 요금만 많이 잡아먹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성질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불만들을 분석해서 ARS 시스템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꿔준다니 고객들과 상담원 모두 좀 더 편한 상담이 이뤄질 것 같네요. 그리고 ARS를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_ 홍양희

●● 〈Weekly 공감〉 40호 기획특집 '품위 있는 국민, 높아지는 국격'과 관련해 올라온 댓글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과 높은 교육 수준, 원조국으로의 발돋움,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대표 선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우리나라는 다방면으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준이나 법질서, 시민의식은 앞으로 더욱 높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와 지구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_ 한재희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해 현 정부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국력과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도 아우르고 함께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_ tndejr

"G20 정상회의 개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내년까지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의 이름을 더욱 떨치기를 바랍니다."_ 두루누리

●● 〈Weekly 공감〉 40호 '이한우 기자의 역사 읽기-조선의 공직자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정실인사와 초고속 승진이 있어 물의를 빚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무릇 인사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도덕성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는 시대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특정인이나 고위관직의 친인척들이 능력 이상으로 빨리 승진하거나 주요 직위에 오른다면 정말 자질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하지 못하고 썩히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인사는 만사로서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므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_ 우향화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알립니다

1 스토리 공모 대전 대한민국 신화(新話) 창조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한류를 이어갈 우수한 스토리 콘텐츠를 모집한다.

분 야 영상 제작 등 원 소스 멀티 유즈(OSMU)가 가능한 창작 스토리
형 식 영상극본(시리즈 및 중·장편) 및 창작 스토리 일반(소설 등) – 다큐멘터리 가능
자 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 수 2010년 1월 27일~2월 2일
발표 및 시상 2010년 2월 말~3월 초
시상 **대상**(1편) 1억5천만원, **최우수상**(1편) 1억원, **우수상**(2편) 각 5천만원, **장려상**(10편) 각 1천만원
접수처 서울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문화콘텐츠센터 대한민국 신화창조 프로젝트 담당자
문 의 02-3153-1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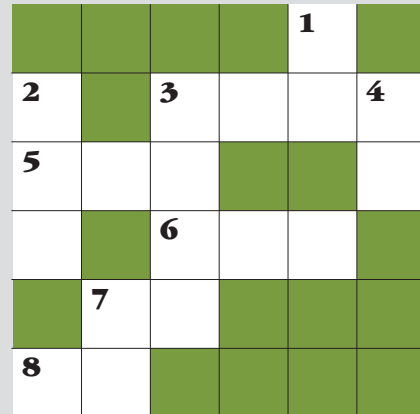
2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 국민인식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0월 조사 때보다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성장'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48.8퍼센트에서 90.6퍼센트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녹색성장' 용어 인지도 90.6%
녹색성장 정책 인지도 85.3%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 88.4%,
녹색생활 캠페인 인지도 36.6%
녹색성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74%
녹색성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여도 81%
녹색생활 실천 수준 87.7%

조사 기간 2009년 11월 6~12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 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e메일을 통한 자기 기입식 조사
표본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구성비 비례 할당 표출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23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9호(12월 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춘하추동 **4** 면역력 **5** 전천후 **7** 세네갈 **9** 아프리카
세로 1 춘향전 **2** 동면 **3** 달력 **6** 후세 **8** 갈무리

〈Weekly 공감〉 3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준상(광주 서구 금호동)
김찬미(경기 포천시 선단동)
모종길(강원 속초시 조양동)
양영종(대전 유성구 가정로)
최재겸(경남 창원시 남양동)

가 로
3.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적지 않게. 조금 작게. "저 집은 아이가 OOOO 넷이래."
5. 환자들을 수용해 휴양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의료기관.
6.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저 OOO까지 올라갈 것이다."
7. 어떤 일을 시행함. 또는 그 일. "대회 주최 측은 다채로운 OO를 마련했다."
8.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좋지 않았던 일이 좋아지는 것. "경기OO"

세 로
1. 아무리 많이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입니다. 어머니….
2. 도욧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옅은 갈색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있으며, 다리, 부리가 길고 꽁지가 짧으며,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 새.
3. 어떤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 참여하여 돕는 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OOOO자만 2백5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상실되는 병. 주로 노인들이 잘 걸리죠. "가수 현숙 씨는 OO 노인 돌보기 자원봉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답니다."
7.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남에게 OO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OO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정선군 화암면사무소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남숙(28) 씨는 자신을 '미스 스마일'이라고 소개했다. 동료 직원은 물론 면 주민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기분도 상쾌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소가 예쁜 그로부터 〈Weekly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Weekly 공감〉을 구독하게 된 계기는.**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것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산뜻하고 깔끔한 표지가 눈길을 끌었고, 정부 정책지라 너무 정책 홍보만 하지 않을까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문화, 스포츠, 역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다양해 이제는 꼭 챙겨보는 잡지가 됐습니다.

- **〈Weekly 공감〉이 왜 마음에 들었나요.**

공무원이라 해도 정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어두울 때가 많은데 〈Weekly 공감〉의 기획특집이나 인터뷰, 포커스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돼 이젠 민원인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해 안내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 **꼭 실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살고 있는 곳이 농촌이다 보니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나 농업 전반에 지원되는 혜택, 우리 농촌이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모습 등에 대해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주지역이 강원도여서 〈Weekly 공감〉이 항상 늦게 도착합니다. '공감마당' 등에 참여하고 싶어도 항상 마감 당일이나 하루 지난 후에 책이 도착해 참여가 불가능하더군요.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 발송 시스템을 개선해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감 담당자 의견 발송이 늦어 죄송합니다. 발송 시스템을 개선, 늦게 받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장삼동 부산시 북구 화명동

1. 송은이 씨 인터뷰를 재미있게 읽었다. 오래전부터 일회용품을 안 쓰기로 했음에도 아직도 완전히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젠 우리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2. 내년 11월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제회의나 행사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위상과 문화를 만방에 떨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결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 무역, 경제협력, 문화교류뿐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만만찮은 만큼 유치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봅니다.
3. 대학 진학과 관련해 전문가나 고교 입시지도 교사들의 조언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으면 합니다.

강성주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1. 시각장애인에게 사진 지도를 하는 양종훈 교수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시각장애인의 사진 찍기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 봉사하는 양 교수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재능을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준 것 같아 흐뭇하다.
2. 앞으로 사회, 정치 분야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국격이 높아지겠지만 앞으로의 국격에는 환경, 녹색성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그린카 확대, 폐기물 자원화 등 녹색성장을 다른 나라에 앞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시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체납세금징수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다뤄줬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16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봉사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GREEN DOC

GREEN DOCUMENTARY

그린다큐 제작지원 공모전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그린다큐' 라는 주제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희망, 녹색 비전, 지구의 미래, 삶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휴식같은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주제

희망메시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불어 오래오래,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초록빛 희망 메시지

녹색의 미래 비전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지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함께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건강한 다큐멘터리

녹색에 대한 소망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숲에서 호흡하듯 삶을 정화, 치유하는 휴식같은 다큐멘터리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www.bcpf.or.kr

공모분야

공모 주제에 적합한 HD급의 뛰어난 다큐멘터리

공모대상

방송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 및 독립제작사
(컨소시엄 가능)

지원내역(매칭펀드 방식)

1억 5천만원 내외(60분물 3부작 이상)
1억원 내외(60분물 2부작 이상)
5천만원 내외(60분물 단편)

접수기간 및 방법

2010년 1월 7일 17 : 00까지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응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및 문의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사업팀(T.02-716-7401)
(121-784)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B-1811

유의사항

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PP를 통해 송출하여야 함 / 각 제작사의 응모는 3개까지 가능하며, 1개사 복수 지원 선정은 불가 / 저작권은 제작사 70%, 재단 30%(자부담 비율에 따라 저작권 상향조정 가능)

주최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Hmall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조영철 기자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회복 속도를 보여온 한국경제는 2010년에도 연간 5퍼센트 안팎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재정확대 기조 유지 · 5% 내외 경제성장

내수 키워 체감경기 회복

올 한 해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경쟁과 공조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2010년 5퍼센트 내외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유가와 환율의 급변 등 위험 요소도 상존하지만 '놀라운 한국(Amazing Korea)'의 경제회복은 지속될 것이다.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연간 5퍼센트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설비투자가 11퍼센트까지 증가하고, 취업자는 2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10 경제정책 방향은 거시경제정책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5퍼센트 안팎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호조를 보인 수출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계속 증가하겠지만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0년 역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세계경제의 회복 정도와 국제 금융시장, 유가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에는 고용 사정과 임금 여건이 점차 회복돼 물가가 안정되면서 실질구매력이 높아져 연간 소비가 4퍼센트대 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가가 상승할 경우 교역조건

이 악화되면 실질소득(GNI) 증가가 경제성장을 대변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회복으로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면 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2008년 11월)는 △주가가 1퍼센트 오를 때 소비는 0.03퍼센트 △주택가격 1퍼센트 상승 시 소비는 0.18퍼센트 오른다는 '자산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돼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1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제조업 가동률도 77.3퍼센트로 정상 수준(80퍼센트)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신규주택 공급 확대로 건설투자 역시 3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적체됐던 미분양주택 수도 지난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소비 긍정적 역할 기대

향후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안정돼 국내 소비자물가는 3퍼센트 내외로 안정된 범위에 머물고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엔 올해(약 4백20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1백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취업자 수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 부문 고용이 개선되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효과를 거둬 2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손웅기 서기관은 "내년에도 경제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되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0년에도 고용회복이 더딜 가능성에 대비해 희망근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일자리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0년 고용률은 58.5퍼센트, 실업률은 3.5퍼센트 내외로 전망됐다. 2009년의 고용률은 58.6퍼센트, 실업률은 3.7퍼센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실사단은 12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기존 마이너스 성장에서 0.25퍼센트 플러스 성장으로 수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퍼센트, 내년 3.6퍼센트로 예측한 바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본 2010 대한민국 경제

비상정책 당분간 유지 5% 성장 방심 말자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은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일반 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비상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을 원해 당분간은 출구전략 실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0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반 국민과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은 대다수(61.1퍼센트)가 '계속 어려운 국면'이라고 본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회복국면'(64.3퍼센트)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이 설문조사는 11월 12~24일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3백25명과 일반 국민 1천5백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0년 중점 경제정책 방향(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72.6퍼센트)을 절대적으로 많이 꼽았고, 다음은 '경기활성화 노력 지속'(37.9퍼센트) '고령화 등 미래과제 대응'(25.2퍼센트) 순으로 중요시했다. 이에 비해 경제전문가들은 '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확충'(49.2퍼센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48.3퍼센트) '경기 활성화 노력 지속'(47.4퍼센트) 등을 고루 중시했다.

출구전략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비상정책들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9.4퍼센트, 74.5퍼센트로 절대다수였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복수응답)과 관련해 일반 국민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45.6퍼센트) '교육비 부담 줄이기'(42.5퍼센트)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고용대책'(82.8퍼센트)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53.8퍼센트)이 중요하다고 답해 다소 견해 차이를 보였다.

2009년과 2010년 경제 전망

(전년 동기 대비)

	2009년	2010년
경제성장률 (GDP)	0.2% 수준	5.0% 내외
민간소비	0.4%	4.2%
설비투자	-9.8%	11.0%
소비자물가	2.8%	3.0%
경상수지	420억 달러	150억 달러

※전제조건
-IMF 세계경제 전망 2009년 -1.1%, 2010년 3.1% 성장
-두바이 유가 2009년 배럴당 62달러, 2010년 80달러

국가고용전략회의 가동 일자리 20만 개 늘린다

2010 경제정책 6대 과제 선정

정부는 '201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을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도약의 해로 삼기로 했다.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시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성장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해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의 2010년 경제정책은 재정확대를 계속하는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단기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을,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을,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진 일류국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제시된 비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고 그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비전 실현을 위한 신성장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10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의 주변 여건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상황이라는 대내외적 인식을 바탕에 깔고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부족하고 고용 여건 개선도 미흡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성장속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완만하고 각국의 재정 여력 약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등장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딛고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 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미래과제 준비 등 6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1 경기회복 공고화 재정 확장정책 유지한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 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정책은 정상화한다. 단,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은 단계적으로 철회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보증 만기 연장은 2010년 6월까지 연장되는 대신 보증비율 상향 조정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된다. 반면 중소기업 유망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해 제품화, 사업화를 지원하며 3조5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가계 부채를 관리한다. 외환 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금융권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게 된다.

2 일자리 창출 우수 기능인력 국가 인재로 관리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20만 개를 목표로 일자리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의료, 방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천명, 공공 부문 1만2천명) 등 일자리 사업을 2010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하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동아DB

동아DB

에 이를 때까지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연금이 도입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의 3백63만명에서 3백75만명으로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도 올해의 16만 개에서 17만6천 개로 늘어난다.

4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 육성한다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실시하고 '탄소펀드' 등 녹색금융을 활용해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녹색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기술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올해의 1차 사업 착공에 이어 2010년에는 1차 사업의 60퍼센트 이상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을 2010년 3월 착공한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며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올해의 6천4백억원에서 7천6백억원으로 확대한다.

5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2010년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이슈 선정 등에 있어 국익을 반영하고 한국의 대외역량을 강화한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민의 자긍심과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만간 발효될 FTA 협정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FTA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한다. 2010년 상반기 중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6 미래 과제 준비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맞벌이 지원 대책을 확대, 출산과 육아 이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2010년 상반기 중 완화한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을 확대하며 국적 관련 규제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 밖에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해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전년 대비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충실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3 서민생활 안정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을 감시한다. 원자재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공동비축제를 도입해 원자재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 보금자리 주택을 연 2회 이상 분양하고, 전월세 시장관리를 위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가칭)을 도입하며,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해 적극 대응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혼모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확대된다.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

전염병 위기단계 '경계'로 내려

신종플루 '심각' 발효 후 한 달 만에 하향 조정… 北에 치료제 보내기로

신종플루의 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졌다.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번지고 있는 북한에도 신종플루 치료제를 보내기로 했다.

동아DB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다.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가 12월 1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9일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했다.

신종플루 발생 이전 전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수준이었다. 그러다 국내에서 첫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직후 '주의'(5월 1일)로 격상된 다음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경계'(7월 21일)로 다시 상향됐고, '심각'(11월 3일) 단계까지 높아졌다가 '경계'로 낮아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위기단계를 낮춘 이유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 사이 2주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지수(ILI)와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집단발병, 휴교 현황 등이 최고조에 이르다가 그 이후 △ILI와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등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 대비해 대응체계 유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아직도 고위험군 예방접종이 남아 있고, 언제든지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염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되고 보건복지가족부 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중심으로 재편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응 등 지역 내 방역의료체계 유지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일부 사회적 격리 조치는 바뀌게 된다.

각급 학교에서는 접종 종료 후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2주일 후까지만 등교 시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군부대에서도 군내 신종플루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던 장병들의 휴가 등 통제 조치를 12월 10일부터 평상시대로 환원하게 됐다. 다만 앞으로도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일어나면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각종 행사는 현행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되 국민 예방접종이 모두 완료되면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도 아직 군인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대 면회객에 대한 발열 감시는 지속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하며 병영 내 집단발병 시에는 부대장 판단 아래 일정 기간 외출, 외박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1월 4일부터 중지된 예비군 훈련은 2010년 3월로 이월해 시간을 단축해 실시하게 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발생 48주(11월 23~29일) ILI(28.32)가 47주(11월 16~22일 · 27.52)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49주(11월 30~12월 6일)째에 다시 감소 추세(잠정 ILI 22.36)를 보였다. 12월 9일 개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위기 평가 회의에서도 '향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후 감소세… 예방접종도 순조로워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45주(11월 2~8일)에 하루 평균 9만9천5백1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교 등에서의 집단발병 사례도 44주(10월 26~11월 1일) 하루 평균 1백69건에 이르다가 49주(11월 30~12월 6일)에는 6건으로 감소했다. 사망 사례도 46주(11월 9~15일) 25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방백신은 12월 10일 현재 초중고 학생 5백71만8천8백명(전체 대상의 76.3퍼센트), 의료인 37만7천2백명(전체 대상의 87.7퍼센트)에게 접종됐다. 12월 7일 시작된 영 · 유아 접종은 24만6천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10.6퍼센트의 진행률을 보였다. 초중고 학생들의 예방접종은 12월 23일 완료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예방접종 후에도 최대 2주 정도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고 접종 후에도 항체 미형성자가 있으므로 언제든 작은 규모라도 신종플루가 재확산되면 중증 환자와 사망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타미플루 등 50만명분 제공키로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보낸다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북한이 우리 측의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50만명분의 치료제가 북한에 제공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월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통화)을 통해 신종플루 관련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북측에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지원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종플루 확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신종플루 관련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급속도로 냈다. 이 대통령의 지원의사 공개 하루 뒤인 12월 9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 지역에 9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예방백신이 아닌 치료제 위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북한에 지원하는 신종플루 치료제 규모는 일단 우리 측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 수급 상황이나 우리 국민의 신종플루 치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측과 판문점 연락관 간 접촉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에 공급할 치료제의 양과 제공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경의선, 동해선 육로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 측이 실무협의 과정에서 타미플루 외에 시약, 의료기기, 소독제 등 신종플루와 관련한 다른 지원품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종플루 관련 각종 지표

구 분		10.26~11.1 (44주)	11.2~11.8 (45주)	11.9~11.15 (46주)	11.16~11.22 (47주)	11.23~11.29 (48주)	11.30~12.6 (49주)
항바이러스제 투약 현황(1일 평균)		69,953	99,516	86,918	47,766	43,717	30,527
ILI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41.73	44.96	37.71	27.52	28.32	22.36
집단발병	발생 건수(1일 평균)	169	96	36	10	11	6
	환자 수(1일 평균)	3,164	2,183	243	56	57	76
사망자 수(사망일 기준/주간 합계)		24	25	25	16	11	6
휴교 현황(1일 평균)		313	464	233	63	36	6

동아DB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체제 개편 방안

특목高 바로잡고 일반高 수준 높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야심 찬 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사교육의 주범으로 인식돼온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을 내실화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이 그것이다.

12월 10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은 특목고를 정상화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그동안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던 사교육 범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이 공교육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목고 제도를 바로잡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루 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공교육 강화를 전제로 학교 간 실질적인 교육경쟁을 유도해 전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겠다는 게 눈길을 끈다.

교육과학기술부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이번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립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에서 일반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무학년제·학점제 운영으로 수준별 학습 지원

학년에 관계없이 고교 졸업 기준에 따라 학생이 수준별로 다양하게 교과를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무학년제·학점제'가 도입된다. 특히 영어, 수학 교육과정은 10~15단계로 구성해 각 단계별로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세부 영역별 '국가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해 운영한다.

이때 우수 학생은 수월성 교육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고, 뒤처지는 학생은 최소 수준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에서 우선 시행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시범 적용 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출석일수 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국어, 수학, 과학 등)과 성취 수준을 정해 국가에서 설정한 최소 수준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 졸업요건제'를 실시한다.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해 전반적인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상 단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도입한다. 최상 단계의 영어 수업은 영어 전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강좌수강생이 일정 수 이하일 경우 거점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입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도(University-Level Program)'를 확대한다. 학교장이 선이수과목, 학업성취 수준을 고려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대학별 자율 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도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면서 참여 대학과 지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 교과 중점 강화하는 교과중점학교 확대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과학·수학, 영어, 예술·체육 등 특정 교과의 교육과정을 중점 강화하는 교과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과학 중점학교'는 심도 있는 과학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과학·수학 교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과학중점과정을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일반계고를 2012년까지 1백 개교를 지정(현재 53개교)한다.

'영어 중점학교'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및 회화 중심의 수준별 수업 등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인 학교다. 2010년까지 50개교, 2012년까지 1백 개교로 확대한다.

예술·체육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지정하고 추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과 중점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일반계 고교의 선발 방식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한다. 평준화 지역인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는데, 해당 학교는 내신성적 등의 기준을 정해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정할 수 없다.

고교 유형 정비 방안

현행		정비 후
일반계고	➡	'일반계고'로 유지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	'특성화고'로 일원화
특목고 9개 계열 (전문(농·공·수산·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열)	➡	'특목고' 4개 계열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고	➡	새로운 유형인 '자율고' 신설

복잡한 고교 유형 단순화… 고입 전형 전국 일괄 시행

현재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고교 유형과 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전문계고, 전문계특목고,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유형을 단일화한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이 분명한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만 존치하고, 여기에 '기술영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를 추가한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고교 유형으로 '자율고'를 신설한다.

고입 전형 일정이 시도별로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 고입 전·후기 전형일정을 같은 시기로 조정해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학교 유형별로 마이스터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자율(립)형 사립고는 전기, 그 밖의 학교는 후기로 구분돼 있다. 학생은 전·후기 학교 가운데 각각 한 개 학교를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구분은 특목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게 만들어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제한해왔다. 또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문계열 학교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는 모두 전기에 해당해 여기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일반계고로 진학해야 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데 제약이 돼왔다.

개편안은 전·후기 학교 구분을 가·나·다 학교군으로 재편해 학생이 가·나·다 학교군에 속해 있는 학교 가운데 하나씩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아래 표 참조). 학생은 최대 3개교까지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군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예정인데 전문계고, 예술·체육고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일반계고는 비평준화 지역이나 도지역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할 방침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학교군 운영 예시

구분	가군	나군	다군
학교	A고(특목고) B고(자율형 사립고) C고(마이스터고)	D고(자율형 공립고) E고(일반계고) F고(특성화고)	G고(자율형 공립고) H고(일반계고) I고(특성화·전문계고)

특목고 입시제도·교육과정 어떻게 바뀌나

사교육 없어도 갈 수 있는 외고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교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사교육 없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만으로 입학이 가능해지며, 외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교과과정이 개편된다.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는 영어듣기평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등의 입학전형으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확산시키는 악영향을 불러일으켜왔다. 또한 전기라는 특성을 활용해 우수학생을 독점하고, 설립 취지에 위배된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외고 폐지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은 특목고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해 사교육 유발 요인 최소화

초등학교 때부터의 선행학습을 유발해온 외고 등 특목고의 학생선발 방식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개선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별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는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영어듣기평가의 경우 외고는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는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한다.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꼽혔던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도 전형요소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의 기재를 없애고 독서실적 등을 기록하는 독서 항목을 신설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외고의 경우 교장 추천서를 통해 외국어에 흥미를 갖고 해당 언어 전공 분야에 진로 의지가 뚜렷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을 전형요소로 할 경우 전 교과 성적이 아니라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반영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입학사정관 대상 특별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외고, 국제고에서 우선 적용하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

동아DB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외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된다.

동아DB

특목고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방법들은 모두 폐지되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평가기준으로 선발한다.

교 등에 점차 확대한다.

또한 외고, 국제고 등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넓혔다. 공립고교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고교는 단계적(2011학년도 10퍼센트, 2012학년도 15퍼센트, 2013년도 20퍼센트)으로 적용한다.

고등학교 입시가 사교육비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를 개선하는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특수목적고, 자율(립)형 사립고,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학교 등에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시도교육청은 사교육 영향평가 계획을 포함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급당 25명 유지·외국어 능숙한 인재 양성 목표

외고는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에 나와 있는 외고 설립 목적을 '어학영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명료화한다.

재정립된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해 외고가 외국어 중심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자리 잡도록 했다. 외고는 현재 3년간 3개 외국어를 이수해야 하고, 총 82단위의 외국어 전문교과를 운영해야 한다. 이 가운데 50퍼센트 이상을 전공언어에 할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고에서는 전공에 42단위, 제1선택어에 36단위, 제2선택어에 4단위를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42단위로 편성 운영되는 전공외국어 이수단위를 확대하되 현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외국어 3개 교과 제한을 2개 교과 이하로 줄였다. 이는 외고가 전공 외국어에 대한 심화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과별 학생 선발을 도입하여 해당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진로 목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해당 언어 사용국 학생의 입학을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필수적 요건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사립외고 36.9명, 과학고 16.9명, 국제고 22.7명으로 외고의 학생수가 현격하게 많다.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외고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외고는 앞으로 학급 규모 등 여건을 충족한 경우 존속할 수 있으며, 타 유형 학교로의 전환을 원하면 고교체제 개편에 맞추어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선택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고·국제고 지정기준, 절차,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하고 5년 단위로 학교별 운영을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글·최호열 기자

궁금해요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대학 입학사정관제 차이점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와 달리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성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입학사정관이 전형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관여하여 선발하는 반면,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로 전형 요소를 한정하고, 영어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경력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전형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고의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청이 위촉하는 위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상 학교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 국제중	대학
전형 대상	신입생 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일정 비율 의무 선발)	신입생 일정 비율
전형 요소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학습계획서	성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 가능
전형 방법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사 (전형위원회는 교내위원, 교육청 위촉위원, 학과별 전공자 등으로 구성)	학내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분 관여

최단 기간 100만 돌파 IPTV 상용화 1년

내년 직거래·의료 서비스 등 대폭 확대

유료방송 역사상 최단 기간 1백만 가입자 돌파, 미디어를 활용한 최초의 공공서비스….
지난해 12월 2일 첫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IPTV가 1년 만에 수많은 기록을 남기면서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이를 기념해 정부와 업계는 이날을 IPTV의 날로 선포했다. 12월 10일 'IPTV 서비스 1주년 기념식'은
이 같은 IPTV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분석하는 계기가 됐다.

12월 11일 IPTV 가입자 수가 1백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월 10일 실시간 가입자 1백만명을 돌파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IPTV 가입자 3백만 시대가 열리게 된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에 걸맞은 콘텐츠 확보도 시급해 이에 따른 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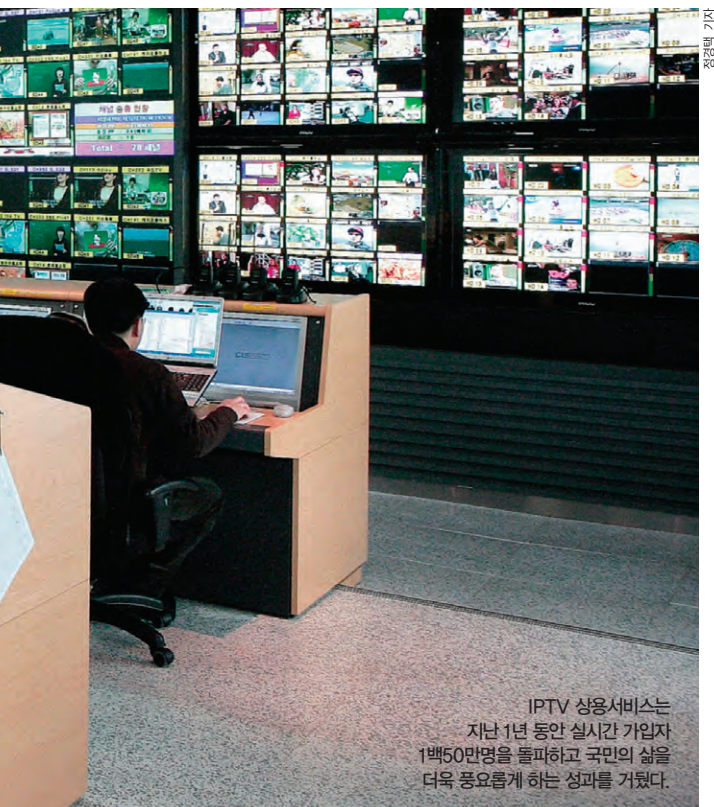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TV는 물론 PC와 모바일로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3사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초에는 가입자 수가 2백만명을 돌파하고 내년 중에 3백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가입자만 86만명에 달하는 KT는 내년 말까지 2백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올 들어 33만명이 가입한 SK브로드밴드와 32만 가입자를 확보한 LG데이콤도 내년에는 총 1백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PTV 3사가 빠른 시간 안에 가입자를 확보한 것은 콘텐츠 확보에 주력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3사는 그동안 지상파를 시작으로 IPSN 스포츠 채널 등 킬러콘텐츠 확보에 주력한 덕에 각사가 1백여 개 채널을 방송하고 있다.

향후 콘텐츠 전략에 따라 가입자 3백만 돌파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KT는 내년부터 '양방향 서비스'를 강화해 카드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T커머스'를 본격 추진한다. 또 실시간으로 채널을 보며 각종 쇼핑이나 검색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채널 연동형 서비스'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SK브로드밴드는 스크린 확대 전략 등을 통해 내년에 본격화

정경택 기자

IPTV 상용서비스는 지난 1년 동안 실시간 가입자 1백50만명을 돌파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될 가입자 유치전에 대비하고 있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TV-PC-모바일에 이르는 3스크린을 실현해갈 계획이다.

LG데이콤은 내년 LG텔레콤으로의 합병 이후에는 기존 LG텔레콤의 일선 대리점망을 최대한 활용한 마케팅과 유·무선 통합 상품 등을 통해 최소 올해 수준 이상의 순증 전략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홈 채널과 원격진료, 교육, T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등 5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프리미엄TV 전략도 추진한다. LG데이콤은 '최혜영 프로의 골프레슨' 등 양방향 홈 채널을 내년부터는 기업, 종교단체, 동호회 등 단체로 대폭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통신방송 강국 비전 제시… 해외 판로도 개척해야"

올해 달성한 '실시간 가입자 1백50만 돌파'뿐 아니라 IPTV가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시도가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TV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에는 국방, 민원, 보건의료, 농수산, 관광, 교통, 사회안전망 서비스 등 총 8종의 모델을 발굴한 바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기관, 사업자 등과 협력해 제공 중인 이 서비스는 양방향 IPTV 서비스를 제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KT는 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 각종 농산물이 안전하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IPTV 농수산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다. IPTV를 통해 경찰청의 유괴, 실종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난사태 발생 시 IPTV를 통해 재난경보를 발령하는 IPTV 사회안전망 서비스도 IPTV 상용화의 큰 업적이다. 여행지를 미리 TV로 접할 수 있게 하는 관광 서비스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도 국민생활에 편리함을 더했다.

의료 부문의 발전도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IPTV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는 한편 병원, 만성질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는 올해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다.

IPTV 사업자들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에 40여 개의 IPTV 공부방과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등을 오픈해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IPTV 아이디어 및 손수제작물(UCC)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서비스 강화에 힘써 IPTV의 질적 향상에 주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IPTV 서비스 개시 1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IPTV가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며 통신방송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IPTV 인프라 확충, 원천기술 개발, 국제적 기술표준 획득,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 각종 농산물이 안전하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IPTV 농수산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는 한편 병원, 만성질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며 서비스도 다양한 스크린으로 확대돼야 한다. 국내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둬야 한다. IPTV와 함께 연관 사업자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

12월 10일 열린 디지털미디어포럼 강연차 방한한 자오 지 펑 화수디지털TV커뮤니케이션 유한공사 고급부총재는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이윤은 많아진다"며 "몇몇 파트너와 제휴를 통해 멀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IPTV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윈윈(Win-Win)이 아닌 멀티 윈(Multi Win)의 관계를 통해 산업 성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G

글 · 문보경(전자신문 통신방송팀 기자)

초보 직장인 위한 연말정산 A to Z

‘13월의 보너스’ 받을 준비 됐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똑똑하게 준비하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되지만 무심히 넘어가면 억울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초보 직장인을 위한 2009년 연말정산 ABC를 살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대체 뭐가 필요하지?”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연말정산으로 과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다. 특히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 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환급받을 만한 소득공제 항목이 그리 많지 않아 돌려받는 세금이 ‘쥐꼬리’만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남의 떡’이기 쉽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두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ABC를 정리했다.

연말정산이 뭐기에

샐러리맨들이 매달 받는 봉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당국을 대신해 직원(납세 의무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년간(전년도 1월 1일~전년도 12월 31일)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보육수당 등)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다. 각종 공제 차감 후를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분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다.

공제 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챙길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달라진 공제 혜택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본공제 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한 부양가족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이 기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존 연령 제한이 6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축소되며, 공제 금액도 1백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대학생이 1인당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가 1인당 50만원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

조영철 기자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또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생각만큼 까다롭거나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 기준을 잘 참고하고 꼼꼼히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자.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세율	1천2백만원 이하 : 8% 4천6백만원 이하 : 17% 8천8백만원 이하 : 26% 8천8백만원 초과 : 35%	1천2백만원 이하 : 6% 4천6백만원 이하 : 16% 8천8백만원 이하 : 25% 8천8백만원 초과 : 35%
근로소득공제 금액	5백만원 이하 구간 : 전액 공제	5백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백만원	1인당 1백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20세 이하,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65~69세 : 1인당 1백만원 70세 이상 : 1인당 1백50만원	65~69세 : 폐지 70세 이상 : 1인당 1백만원
자녀교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 추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백만원	연 7백만원
미용성형 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2백만원	1인당 3백만원
교육비 대학생	1인당 7백만원	1인당 9백만원
교육비 공제 비용		중고생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혼례, 장례, 이사 비용	연봉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백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천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1천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천5백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청약용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 공제(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백만원	월 1백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천만원)

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한이 연장된 미용성형 수술비와 한약 구입비가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 비용에 대해 1백만원씩 공제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닌 실수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공제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백만원을 넘는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5백만원(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1백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퍼센트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G

글 · 대한민국 정책포털

부당공제 유형

소득공제 항목	부당 공제 유형
인적공제	• 부모를 형제 등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연금 보험료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보험료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연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	• 산후조리원 및 외국 소재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등을 의료비로 공제받는 경우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각각 공제받는 경우 •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 신학대학원 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대학교 교육비로 혼동하여 공제
기부금 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 • 허위로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공제받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	•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조영철 기자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상식

Q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 인정을 받는다.

Q 올해 출산을 했는데, 무슨 혜택이 있나.

A 추가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백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6세가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백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백50만원에 추가공제 3백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돼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부터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다.

Q 부모님이 암 투병 중이다. 연말정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슨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A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한 명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A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각각 한 명씩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부 공제대상인가.

A 그렇지 않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퍼센트에 미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액 중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구입비,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지불액은 제외된다.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와 보육비도 제외된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해외여행 경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과 수수료, 보증료 등도 제외된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꼭 챙기는 법

휴대전화번호 등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조영철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 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는 본인 외 합산 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 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

급여명세서에 담긴 1%

다문화 이주여성 창업지원으로 희망 100%

착한가게가 나누는 1%

백혈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으로 미래 100%

ARS 한 통화로 전하는 1%

결식아동, 어르신에게 한끼식사로 행복 100%

당신의 1% 나눔이 누군가에겐 100% 행복이 됩니다

나눔은 행복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ARS기부 070·700·1212 기부상담 080·890·1212 www.chest.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족의 손길처럼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입니다.

험한 세상에 희망의 다리 되어

기획특집

기적에 목말라하는 세상,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곤 한다.
검은 재앙이 넘나들던 태안의 바닷가도,
붉은 물결이 휩쓸던 길거리 응원 뒷정리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회복지의 그늘 곳곳에도…
남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결국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끈다.
사람이 사람을 껴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누구나 희망 품고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일러스트 · 채홍석

드센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볼과 헝클어진 머릿결,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손과 얼굴,
비닐 우의에 고무장화,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한
빨간 고무장갑까지….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아름답다고 기억한다.
이웃과 자연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태안의 겨울 바닷가를 누비던 1백20만
자원봉사자들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기억한다.

태안의 바다를 위협하던 '검은 재앙'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비탄에 빠진 태안의 생태계를 살린 자원봉사자들의 긴 행렬을…. 푸른 생명을 위협하던 검은 기름띠와 맞선 붉은 심장의 인간띠,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은 검은 재앙을 몰아내는 기적을 낳았다.

지난 12월 7일 충남 태안군청 대강당에서는 주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기름유출 사고 2주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참석자들은 '검은 재앙'으로 불린 기름유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1백20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삼성물산 소속의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1만2천5백여 킬로리터의 원유가 유출됐다.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라는 수식어가 나돌며 단번에 양식장이 파괴되고 죽은 물고기들이 해변에 나뒹굴었다.

일순간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태안 주민들의 모습에, 아름다운 태안의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스크와 비닐 우의, 비닐 장갑과 장화 정도만 갖춘 남녀노소 자원봉사자들은 기름 흡착지가 모자랄 땐 헌 옷과 헌 플래카드를 잘라가며 손으로 일일이 검은 기름띠를 걷어냈다.

그리고 2년 후.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외국 환경전문가들의 예언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태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태안자원봉사센터장 가순례(56) 소장은 "그때는 소장이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자로 함께 기름띠를 걷어내고, 매일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 간식 준비하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때로는 가족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름띠를 제거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태안 사람으로서 무척 고마웠다"고 회상했다.

'태안의 기적'을 낳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비단 태안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대형 사고 및 재난 현장, 국가적인 행사와 지방자치단체 축제 현장까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인증관리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252만1000명 달해

통계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증관리에 등록한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수는 모두 2백52만1천여 명이다.

자원봉사는 경제적인 가치도 크다. 전국 2백48개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은 20퍼센트에 이르며 연간 자원봉사활동 총시간은 약 6억6천5백19만 시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노동부 고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06년 1천2백97억원, 2007년 1천9백47억원, 2008년 2천2백5억원이며,

조영철 기자

2007년, 태안
봉사하는 대한민국

올해에는 2천4백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새로운 진기록을 만들기도 한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 용산구 옛 수도여고 운동장에서는 자원봉사자 7천5백여 명이 저소득층에게 나눠줄 김장을 담그는 전국 최대의 '매머드급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사용된 재료만 해도 배추 5만 포기, 무 2만 개, 대파 2천 단, 쪽파 2천8백 단, 마늘 1.2톤, 생강 4백 킬로그램, 새우젓 6백20킬로그램, 멸치액젓 3.2톤, 소금 7.4톤이 소요됐다.

자원봉사 활동 극대화 위해 협력체제 구축·운영 나서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들의 협력체제 구축과 운영 지원,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는 1년 3백65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전화 1365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65를 누르게 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자원봉사 시스템도 활성화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주)NHN,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누리꾼(네티즌)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 '네이버 해피빈'이 지난 4월 6일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누리꾼은 네이버 해피빈에 접속해 노력, 교육, 재능, 상담, 의료, 문화, 공익활동, 행정업무 등 자신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맞는 지역별, 분야별 봉사 일감을 손쉽게 찾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물질적 손상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2008년 7만명, 2009년 17만명에서 2010년에는 전체 활동봉사자 가입을 추진한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문화이벤트 무료초청, 건강검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 인증·보상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들의 날인 12월 5일을 전후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단체가 주관하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열려 수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외봉사단체인 지구촌나눔운동의 홍보담당 김민영(28) 간사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충격에 휩싸여 있던 1998년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일은 소수만의 특별한 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자원봉사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구촌 빈곤국가들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오충선 박사는 "자원봉사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나눔의 정신이란 점이 중요하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눔의 정신에는 대가가 없다는 점에서 자원봉사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앞으로의 자원봉사는 '노력 봉사' 이상의 전문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좀 더 전문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프로보노(pro bono·라틴 문구의 약어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와 같이 공익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가 생겨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적 틈새를 메워가는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자원봉사가 폭넓게,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G

글·박경아 기자

안 앞바다를 기억하십니까?

미래를 엽니다

동아DB

어두움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들

“사랑은 나누는 만큼 돌아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힘겹게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박홍이 연세대 교수, 오지마을의 홀몸노인들을 찾아가 친정 부모처럼 돌보는 이상녀 씨, 방송에 불우한 이웃의 사연을 보내 1백여 명에게 1억원이 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구복서 씨,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임재순 씨. 이들은 한결같이 “봉사를 하면 남도 나도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박홍이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삶은 부메랑… 나누는 만큼 돌아옵니다”

낡은 책장이 텅 비어간다.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둔 연세대 물리학과 박홍이(65) 교수는 벌써 1년 전부터 연구실에 ‘아름다운 가게 기증의 집’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책은 마음껏 가져가라”고 일렀다. 퇴직 후 집으로 갖고 갈 50여 권의 물리학 책 보따리를 빼고는 다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 11월 말 MBC 사회봉사대상 본상과 함께 받은 상금 7백만원도 후원단체에 나눠주고 남은 10분의 1 토막만 부인에게 갖다 줬다.

나눔과 봉사는 박 교수에게 새삼스런 이벤트가 아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평생을 살아온 습관이다.

“초등학교 때 등교하기 전에 마당을 쓸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어요. 한 달치 용돈을 모으면 그중 10분의 1은 꼭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하셨죠. 수학여행 못 가는 같은 반 친구의 경비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시고, 겨울 코트를 입고 나가면 벗어주고 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 옆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나도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오. 인생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너야 할 강이 많이 있습니다. 삶은 부메랑과 같아서 좋은 것을 힘든 이에게 나누어주면 언젠가 같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못했다고 하지만, 박 교수가 실천한 나눔과 봉사는 많다. 강원도 홍천에서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는 동네 산골 아이들을 가르쳤다.

홀몸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돼주고 목욕을 시켜줬는가 하면, 소년소녀가장의 아빠 역을 맡았다. 행려병자를 염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불교식으로 염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최근 가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의 영정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다기에 사진도 배울 참이다.

박 교수는 주변에 봉사 정신을 퍼뜨리는 데도 열심이다. 한 주일에 한 시간씩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자는 뜻의 ‘TOM(Three Ones Movement)’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연세대 교직원들 30여 명을 참여시켰다. 홀몸노인 간병, 소년소녀가장 보살피기, 무료 과외교습 등 몸소 뛸 수 있는 봉사를 하는 동아리다.

‘연세자원봉사단’의 단장인 그는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봉사를 몸소 가르쳤다. 박 교수가 개설한 사회봉사 과

정경택 기자

퇴직을 앞두고 책을 나눠주고 있는 박홍이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목은 이론보다 실습이 주다. 한 학기에 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학점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핵환자 요양소에서 환자를 돌보고, 요양원 텃밭에서 봄에 배추 모종을 심어 가을에 수확해 김장을 같이 담그는 일까지 박 교수가 솔선수범했다.

'제일 힘든 일은 내가 해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4년 전 췌장암이 발병한 뒤로는 몸으로 뛰는 봉사활동을 많이 줄인 편이다. 기적처럼 병이 나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봉사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양복지관에서 밥 당번을 한다. 노인들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드리면 "교수 같지가 않아.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다"는 칭찬을 듣는다.

박 교수는 소아암·소아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한빛사랑후원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다. 2004년 출범한 후원회는 같은 해 연세대 큰길 맞은편 철길 근처에 '한빛사랑나눔터'를 마련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아담한 연립주택으로, 어느 독지가의 후원으로 소아암·소아백혈병 환자를 위해 마련한 쉼터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올라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쉼터를 병원 가까이에 둔 것이다.

쉼터에는 연세대에서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함께 놀아주고 캠프도 간다. 치유가 어려운 아이를 위한 호스피스 방도 마련돼 있다. 퇴직 후에도 연세자원봉사단의 단장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그는 요즘은 아코디언을 배운다.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음악학교를 열기 위해서다.

"희망의 'ㅎ'자도 볼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음악 멘터를 해주는 학교예요. 친구들에게 하모니카나 색소폰이나 뭐라도 악기를 배워두라고 했습니다. 음악 선생들이 모이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떠난 뒤 천국 문 앞에서 '뭐 하다 왔나?'고 물으면 주저 없이 '꿈을 심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거란다. 지난 5월 박 교수가 펴낸 에세이집 〈5분간의 生만 허락된다면–마지막 쓰는 편지〉에도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오. 인생은 건너야 할 강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너야 할 강… 삶은 부메랑과 같아서 좋은 것을 힘든 이에게 나누어주면 언젠가 같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빛사랑후원회 Tel **02-3142-0675**

정경택 기자

노숙자를 위한 배식 봉사를 하는 구복서 씨.

정경택 기자

요즘은 매주 한 번 쪽방촌을 찾아 저녁식사를 나누어주는 일도 한다. 이런 공로로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받은 구 씨는 "일찍 돌아가신 내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인분들을 돌봤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서울영등포구보건소 구복서 씨
"친정엄마 대하듯 노인들 돌봅니다"

'73세 이○○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받아왔으며 만성신부전으로 전신부종, 구토로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혈액투석을 위한 검사와 인공 혈관 삽입술을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인숙에서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는데, 월 26만원 받는 정부 보조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구복서(52) 씨가 지난해 8월 '수호천사 지원 대상자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구 씨는 A4 용지 2쪽 분량의 신청서에 이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 가족력, 경제력, 시급한 지원 내용 등을 빼곡히 적었다. '수호천사'로 채택되면 EBS '효도우미' 방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영이 되면 시청자들이 ARS 후원금을 내 도움을 주는 것이다. 덕분에 후원금 5백만원을 받아 수술을 한 이 할아버지는 구 씨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마워한다.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는 구 씨가 지난해 4월부터 EBS,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에 사연을 보내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사람들만 1백18명. 의료비와 생계비로 지원받게 해준 후원금만 해도 1억1천9백42만3천원에 이른다. 방송작가도 아닌 구 씨가 영등포구 내 불우이웃의 사연을 적어 보낸 뒤 방송 채택률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 돕고자 하는 간절

한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봄부터 맡은 제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드리는 일이에요. 영등포구 내 5천4백여 가구를 돌아가며 혈압도 재고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방문해서 점검했는데,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손을 쓸 수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사연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방송 말고도 도움을 주는 사회단체나 기업, 종교단체에도 문을 두드렸다. 덕분에 백내장 수술, 인공관절 수술, 전립샘 수술, 폐질환 수술, 심장질환 수술 등 의료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 1천명에 가깝다. 구 씨가 작성한 연계 처리기관 명단에는 도시락, 간병인, 호스피스, 도배, 보청기, 차량 지원, 목욕, 쪽방, 휠체어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기관의 연락처가 정리돼 있다. 손만 뻗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봉사 서비스망을 구축해놓은 것이다.

홀몸노인을 찾아가 목욕봉사를 하는 이상녀 씨(오른쪽에서 두번째).

구 씨는 영등포동 쪽방촌에 주소 스티커를 다는 아이디어도 냈다. 벌집처럼 주소를 찾기 힘든 3백72개 쪽방에 일일이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요즘은 매주 한 번 쪽방촌을 찾아 노숙자 수백 명에게 저녁식사를 나누어주는 일도 한다. 이런 공로로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받은 구 씨는 "일찍 돌아가신 내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인분들을 돌봤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한울타리 봉사단 이상녀 씨
"요양원 만들어 오갈 데 없는 노인 돕고 싶어요"

이상녀(59) 씨는 얼마 전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다녀왔다. 선고리는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다니는 오지마을로, 홀몸노인 열 분이 이 씨를 기다린다. 이 씨가 속한 한울타리 봉사단은 50, 60대 여성 8명이 한 조가 돼 봉사를 한다. 벌써 6년째라 손발이 척척 맞는다.

"두 사람이 목욕차 안에서 노인분을 목욕시켜요. 다른 사람들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냉장고 정리까지 다 하면 하루가 걸려요. 팔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면서 말벗을 해드리니 헤어질 때 많이 아쉬워하세요. 저희들도 돌아오는 길엔 친정엄마 놔두고 오는 것처럼 마음이 짠합니다."

이 씨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앉은뱅이로 살아가는 할머니의 집 안 살림을 내 집 일처럼 돌봐주는가 하면, 급식비가 없어 굶는 소년소녀가장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졸업할 때까지 익명으로 통장에 급식비를 보내줬다. 태풍이 불어 만신창이가 된 집을 수리해주고, 폭설이 내린 곳에 찾아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제 딸도 빨래 도우미를 시작했대요. 가족들이 응원해주니 늘 고마워요. 힘이 닿으면 요양원을 만들어 오갈 데 없는 노인 서너 분을 모셨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눈을 치운다. 2년 전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때도 일손을 보탰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무조건 간다고 대답한다. '도와드리면 힘이 될 걸 아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인 이 씨는 지역에서 봉사와 관련된 감투도 많이 썼다. 1985년부터 새마을통회장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을 거쳐 지금은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남천동현동 사랑나누미' 회장과 '한울타리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시행 이래 이 씨가 보유한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1천1백18시간.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4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주에서 열린 '2009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자원봉사자 포상 중 가장 큰 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남편과 딸, 사위, 한울타리 봉사단원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다. 천성이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지만, 이 씨가 봉사에 더욱 발 벗고 나선 계기는 광부로 일하던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부터다. 16년 전 갱도가 무너지면서 탄더미에 묻힌 남편은 다행히 구조됐지만 하반신이 마비됐다.

"5년간 병원에 있으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고 보상금과 합의금을 타내고, 아이들 학비를 보조받는 등 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었죠.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병원을 집 삼아 살 때 이

옷에서 아이들도 보살펴줬고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뭐 도울 일이 없나 찾아봤습니다.

남편의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던 트럭 운전기사는 제 남편처럼 하반신 마비인데, 홀몸이어서 간병인도 없었습니다. 제가 빨래도 해드리고 손발이 돼드렸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두 남자를 업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데려다줘서 면허시험에도 합격했고, 지금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제가 우리 아저씨(남편)도 만날 업고 다니는데, 남자라고 못 업을 게 없죠."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와 남편에게 바깥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들 부부의 낙이다. 이 씨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공을 가족에게 돌린다.

"남편 덕분에 남을 돌아볼 힘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제 딸도 빨래 도우미를 시작했대요. 가족들이 응원해주니 늘 고마워요. 힘이 닿으면 요양원을 만들어 오갈 데 없는 노인 서너 분을 모셨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한국메이크어위시 자원봉사자 임재순 씨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고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위시데이' 행사에서 이기석, 이윤열, 홍진호, 임요환 선수 외에 당시 유명 프로게이머들의 도움으로 아이가 멋진 프로게이머 데뷔식을 가졌습니다. 위시데이 행사가 끝나고, 다음 해 겨울엔가 아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위시데이를 함께 했던 봉사자들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잘생긴 아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 그런지 얼굴뿐 아니라 온몸이 부어서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간호하다 지쳐서 저희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옆에서 쪽잠을 청하고 계셨고,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삭막한 병실 한쪽 벽에는 그날 우리가 찍어주었던 그 많은 감동의 사진들이 가득하더군요."

> "한 아이의 소원을 집중해서 들어주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단 하루 최고의 날을 위해 집중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샘솟고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도 현실이 됩니다. 저희 봉사 팀 '위시 컴 트루'라는 이름처럼요."

임재순(34)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시데이 행사를 진행하기 전 몸이 많이 아팠는데, 막상 위시데이 장소에 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임요환 선수도 만나고 자신의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니 여느 팔팔한 아이 못지않게 뛰어다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한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임 씨가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은 벌써 6년째다. 주로 20, 30대 직장인들인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이뤄 아이를 찾아가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를 벌이는데, 임 씨네 '위시 컴 트루'는 초창기부터 활동한 고참 팀으로 명성이 높다. 그동안 35명의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위시데이를 진행했고 뿌듯한 사연, 눈물겨운 사연이 차곡차곡 임 씨의 가슴 속에 쌓였다.

한 아이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아이를 만나고, 소원을 찬찬히 듣고,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걸린다. 파일럿이 되고 싶은 아이를 위해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아 제주행 비행기 조종석에 아이를 앉히고 전문 비행사 훈련을 받게 했는가 하면, 또 다른 아이를 위해서는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위시데이 이벤트. 11월 27일에 임 씨네 팀은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다는 13세 소녀를 위해 '테라피스트 되기'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골육종을 앓는 이 소녀는 아토피 질환을 앓는 동생을 위해 천연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팀원들은 전문 테라피스트를 초빙해 강습을 받고, 소녀를 초대해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임 씨는 이 봉사를 통해 자신도 얻는 게 많다고 말한다.

"한 아이의 소원을 집중해서 들어주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이 각양각색이듯 소원도 같은 게 없습니다. 다른 아이가 체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아이만을 위한 맞춤 소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하루 최고의 날을 위해 집중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샘솟고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도 현실이 됩니다. 저희 봉사 팀 '위시 컴 트루'라는 이름처럼요." G

글 · 최은숙 기자

난치병 아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여행을 함께 떠난 임재순 씨(윗줄 가운데).

휠체어 수리·결혼식 도우미·친정엄마 맺어주기…

봉사의 손길은 바로 내 옆에

헤르만 헤세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더 클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친정엄마가 되어주고,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부부에게는 결혼식을 마련해주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세척하고 수리해주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다.

마포구청 '결혼이민여성 친정엄마 맺어주기'
"모녀 함께 손잡고 딸애 모국 찾아가고 싶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시어머니한테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대해요."

"우리 딸, 참 착하구나. 나도 중풍으로 누우신 시어머니를 18년이나 모셨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잘 안단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

엄마와 딸의 대화가 정겨웠다. 아들만 셋을 둔 서울적십자사 봉사회 마포지구협의회 박선순(62) 회장은 올해 딸을 얻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송세홍(37) 씨와 엄마와 딸이 되기로 한 것이다. 박 회장은 봉사활동으로 바쁘고 송 씨도 다섯 살, 5개월 된 딸 둘을 키우는 터라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모녀는 전화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박 회장이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자 송 씨는 "친딸처럼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나중에 엄마처럼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여성단체연합 박경자(69) 회장은 베트남에서 시집온 황경화(22) 씨의 친정엄마가 됐다. 박 회장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 왔는데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정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음식, 예의범절, 풍습 등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딸을 챙겼다. 황 씨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야기를 나눠 보니 엄마가 참 좋다"며 "지난 가을 일산으로 같이 소풍 갔을 때가 즐거웠다"고 말했다. 모녀는 언젠가 함께 베트남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단어 엄마.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 친정엄마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지는 존재다. 더욱이 남편 하나 믿고 낯선 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친정엄마를 떠올리며 눈물짓는 순간이 많을 것이다.

서울 마포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50명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친정엄마를 맺어주었다.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류보현 여성정책팀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은 대화 상대가 많지 않아 우리말을 배우는 속도가 늦고,

정경택 기자

결혼이민여성 '딸'들과 한국인 '친정엄마'들이 모여 아프리카 신생아들에게 보낼 털모자를 뜨고 있다.

외국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데다 가족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주지 않아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한국인 멘터로 친정엄마를 맺어줘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구청에 등록한 외국인이 7천7백42명, 다문화가정이 4백27가구 1천2백여 명이 있다. 마포구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친정엄마를 맺어주기 위해 외국인 전용 주민센터인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와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외국인 여성들을 방문하고 마포구 내 다문화가정 4백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해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여성 50명을 찾았다. 또 마포구 내 16개 여성단체의 회장들과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심이 많은 50, 60대 여성들 50명으로 친정엄마를 구성했다.

그동안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송편 빚기, 한복 입고 예절 배우기, 감사편지 교환하기 등의 행사가 열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문화를 익히고, 친정엄마와 딸들은 한층 가까워졌다. 12월 8

일에는 아프리카 신생아에게 전달할 털모자를 뜨기 위해 1백여 명의 모녀가 모였다. '신생아 털모자 뜨기'는 아프리카의 아기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낮의 기온차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류 팀장은 "주로 도움을 받는 처지인 결혼이민여성들이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Tel **02-3135-8921**

행복한 하늘

'행복한 하늘' 회원들이 무료 결혼식을 올려준 이고르 씨 부부와 함께했다(위).

소외층 무료 결혼식 봉사 '행복한 하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드려요"

11월 14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클류신 이고르(32) 씨와 김 옥사나(27) 씨가 백년가약을 맹세하는 자리였다. '고려인'으로 할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름다운 예복과 꽃 장식, 축가단까지 갖춘 결혼식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고르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도 및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고, 김 씨는 사마르칸트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생활을 했다. 이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세운 중현교회에서 만나 이고르 씨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생활 8년째인 이고르 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올봄에 한국에 온 김 씨는 넥타이공장에 다니고 있어 결혼식이 부담이 됐다.

이번 결혼식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는 자원봉사 모임 '행복한 하늘'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행복한 하늘'은 (주)엠보이스의 정권 대표 등 회사 임직원 5명, 중앙일보 청소년기자단 10여 명, 삼육대학 메이크업과 학생 8명, 이 밖에 개인 봉사자들이 뜻을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다.

'행복한 하늘' 안병옥(47) 회장은 "전에는 장애아동이나 노인시설, 고아원 등을 찾아가 요리봉사를 주로 했었는데, 일반적인 봉사는 하시는 분들도 많아 사회적 관심이 덜 가는 곳을 찾게 됐다"며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평생 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식 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고르 씨 부부의 결혼식은 '행복한 하늘'이 준비한 첫 번째 '작품'이다. 안 회장은 "처음에는 가벼운 발상에서 시작한 일인데, 막상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일생의 중대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신경 쓸 일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웨딩사진 촬영, 드레스와 턱시도 시침질, 신부 마사지 등 결혼식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처음엔 우리가 진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결혼식이지만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멋진 결혼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어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안 회장은 단체 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고마워했다. 예식장은 성북구청의 도움을 받았다. 성북구청은 신랑과 신부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식장 우선 사용권을 주고 성북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구민들과 예식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안 회장은 "간혹 결혼식 봉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업체 홍보를 위한 도움은 거절하고 있다"며 또 "현금 후원도 받지 않고 필요한 물품만 현물로 받는 게 '행복한 하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무료 결혼식 신청을 받으면 예비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장 정도만 무료고 다른 비용은 다 부담해야 하는 무늬만 무료인 결혼식도 적잖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비용은 다 저희가 부담합니다. 1백 퍼센트 무료입니다."

안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뒤로하고 결혼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신랑 신부를 대할 때, 그들이 고맙다며 눈물지을 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고르 씨 부부의 결혼식은 고려인 3세가 핏줄의 나라 한국에 와서 올린 결혼식이라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신부 어머니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방인이라는 차별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인 한국에는 따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는 긴급 출동 외에 복지관을 순회하며 세척과 경정비를 해주는 '휠체어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김귀복 부장은 3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오른쪽).

조영철 기자

뜻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말해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안 회장은 "결혼식 봉사를 하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하늘'이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처음엔 준비해야 하는 소품이 많았고 자원봉사자들도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젠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졌다"며 "결혼식 비용이나 내용에 대해 걱정 말고 많이 신청하시라"고 말했다.

'행복한 하늘' Tel **010-3526-1969 cafe.naver.com/1004happysky**
서울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Tel **02-920-3279**

노원구청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장애인의 발 '휠체어' 세척·수리 해드립니다"

12월 10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마당에 20여 대의 휠체어들이 줄을 섰다. 한 달에 한 번 휠체어를 '목욕'시키고 정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휠체어 이동 서비스'라고 쓰인 1톤 트럭에서 휠체어 세척과 정비 장비가 내려지고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김귀복(47) 부장과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압축공기로 휠체어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날려보낸 후 스팀 세척기로 휠체어의 오염을 제거했다. 팔걸이, 배터리 통, 발판, 바퀴 등 구석진 곳은 손걸레로 닦아냈다. 또 레이저로 진드기와 세균을 죽이는 소독을 하고 왁스를 발라 윤기를 냈다. 세척만이 아니라 헐거워진 나사가 있는지, 고장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휠체어 방석과 바퀴의 공기를 조절했다. 휠체어 한 대당 20~30분씩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한겨울에도 땀이 났다.

휠체어를 세척하고 정비하는 김 부장도 3급 지체장애인이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하지만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3급이니까 1, 2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반인보다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죠. 평소 휠체어를 잘 점검하면 장애인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 6월 장애인 봉사단체인 곰두리봉사협회의 고만규 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실현해 노원구청의 지원으로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를 열고 '휠체어 이동 서비스'를 시작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다. 휠체어도 자주 세척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틈틈이 부품을 조이고 수리해야 한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세척하고 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이동 중에 휠체어에 고장이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꼼짝할 수가 없다. 하지만 노원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큰 걱정이 없다.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가 있어 휠체어 세척과 수리는 물론이고 이동 중 고장이나 방전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이동 서비스'는 긴급 출동 외에 노원구 내 복지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복지관의 휠체어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세척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휠체어 세척과 경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나 가까운 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세척과 경정비는 무료지만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부품 값을 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생활이 대부분 어려운데 휠체어 부품이 10만~20만원의 고가이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고 부품을 구해 무상 수리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어렵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난다는 강 부장은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 더 열심히 '휠체어 이동 서비스'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Tel **02-971-5002**

홀몸노인 돌보는 '서로 돕고 사는 집'

"490명 회원··· 100% 자원봉사로만 운영"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식당이 있다. 회원 후원금과 물품 기부, 자원봉사자들이 이 식당의 동력이다. 홀몸노인들에게 반찬 배달과 난방비 지원 등을 해주고 있는 식당 '서로 돕고 사는 집'을 찾았다.

매일신문

'서로 돕고 사는 집'은 정부 보조금 지원 없이 100퍼센트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대구지방보훈청 인근 골목길 안에 '서로 돕고 사는 집'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이름의 식당이 있다. 이곳은 홀몸노인들에게 반찬 배달과 난방비 지원 등을 하는 봉사모임의 사무실을 겸한 식당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20여 명의 홀몸노인들에게 반찬 배달을 하는 날. 12월 1일 오전부터 5명의 자원봉사자가 밥과 국, 반찬, 쌀, 과자 등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식당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금옥(56) 씨는 "이번 주는 쌀, 다음 주는 라면 등 배달을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잡수실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까지 충분히 챙긴다"며 "이번 주에는 얇고 낡은 이불을 덮고 지내는 어르신이 있어 겨울용 이불도 한 채 장만했다"고 했다.

음식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루 살펴 방세를 못 내는 노인이 있으면 대신 내주기도 하고, 전기장판과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기도 한다.

특히 이날은 새대구로터리클럽 회원들이 반찬 배달에 동행했다. 로터리 회원들은 홀몸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가구마다 5만원씩 전기세를 보조하기로 해 모두 1백만원의 성금을 내놓았다.

'서로 돕고 사는 집'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운영비는 회원 후원금과 물품 기부로 충당하고, 식당 일은 8명의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다. 식당 임대료도 후원자의 도움으로 해결했고, 에어컨이며 주방 식기까지 모두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김 씨는 "쌀이 떨어졌냐고 수시로 물어오는 후원자, 된장과 간장을 지원해주는 스님, 시골 장날에 시래기와 콩잎 등을 잔뜩 사서 보내주는 많은 후원자와 회원들 덕분에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래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100% 자원봉사로 운영…식당 수입 전액 이웃돕기 사용

식당 운영 수입은 전액 이웃돕기에 사용된다. 골목길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서로 돕고 사는 집'의 취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음알음으로 찾아온다. 회식을 하고 기부금 삼아 돈을 더 얹어주는 사람도 있고, 밥값이 싸다며 1만원짜리 한 장을 선뜻 내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

연말에는 더욱 사랑이 넘친다. 통기타 회원 모임인 '통사랑'은 지난 11월 15일 통기타 공연으로 번 돈 4백여 만원을 성금으로 보내왔고,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각 구청에서 쌀과 김장김치도 보내왔다.

'서로 돕고 사는 집'은 경북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인 엄지호(63) 씨의 아이디어로 문을 열었다. '손잡고 가요'라는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 운영을 구상한 것이다. '손잡고 가요'는 대구·경북지역 언론인과 공무원, 의사, 사회복지사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나눔을 실천하는 동호회다. 현재 가입회원만 4백90여 명이다.

엄 씨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오히려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제 빈곤층 숫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조금씩만 나누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G

글 · 한윤조(매일신문 사회정책팀 기자)

후원 문의 Tel 053-653-7779

2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한 '연탄배달' 체험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3.6kg 까만 행복을 나르다

12월 7일 〈Weekly 공감〉은 서울 중계본동의 달동네에서 2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탄배달 봉사에 나섰다. 이곳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우려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온몸이 땀과 연탄가루로 뒤범벅돼도 이에 아랑곳없이 마을 곳곳에 사랑과 정성이 담긴 연탄을 실어 날랐다.

과자 한 봉지 값도 되지 않는 가격 5백원에 무게는 3.6킬로그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달동네에서 겨울을 나려면 꼭 필요한 것. 바로 연탄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연탄을 땠다. 당시 연탄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땔감이었고, 음식을 만드는 연료로도 쓰였다. 또 다 타고 버려진 연탄재는 눈 쌓인 비탈길 위에서 아이들이 미끄러질세라 푹신한 양탄자가 돼 주었다.

추위가 한풀 꺾인 12월 7일 오후, 연탄배달 봉사 현장인 서울 중계본동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런 추억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느새 도착한 봉사 현장 인근의 '연탄은행' 앞에는 청와대 어린이기자단을 비롯해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있었다. 연탄은행은 2002년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무료로 지원 배달해온 사회복지법인으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이곳을 통해 '연탄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은 연탄은행 대표인 허기복 목사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 허 목사는 먼저 청와대 어린이기자단 소속 초등학생들을 연탄이 쌓여 있는 창구 앞에 일렬로 세운 뒤 손수레에 차곡차곡 실어 나르도록 지시했다. 아이들은 얼굴에 시커먼 연탄가루를 묻혀가며 한 장 한 장 조심해서 옮겨 담았다. 연탄이 생각보다 무거웠는지 한 아이가 "이걸 언제 다 옮기지?"하고 한숨을 쉬자 허 목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허허 웃었다.

이동할 때는 아이들이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뒤에서 밀었다. 언덕길이 계속 이어지자 자원봉사자들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구슬땀이 맺혔지만 힘들다고 투덜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얼굴은 온통 땀과 연탄가루로 뒤범벅됐어도 다들 활기가 넘쳤다.

자원봉사자들은 한 골목 앞에서 손수레를 세우고 연탄을 배달할 집 앞까지 일렬로 길게 늘어섰다. 배달은 한 학생이 연탄을 손수레에서 집어 들고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야말로 단순노동이지만 팀워크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또 연탄 한 장을 나르는 데도 요령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힘겨워하던 김하은(경주 내남초교 6학년) 양은 "연탄을 위아래로 받쳐 드니 힘들지 않네요!" 하며 굉장한 비법이라도 터득한 듯 뿌듯해했다.

아이들은 손수레 연탄 배달을 마친 후 지게로 연탄을 날랐다. 이날 최연소 자원봉사자였던 유하랑(경기 남양주 금남초교 4학년) 군은 "연탄배달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며 "친구 중에 연탄을 때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네에도 배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부터 유학생까지 연탄배달에 구슬땀

성인 자원봉사자들은 손수레를 끌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볐다. 그중에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과 해외유학생 커플도 있었다. 싱가포르 SIM대학에서 매니지먼트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민호(25) 씨는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커졌다"며 "방학기간에 한국에서 새롭고 뜻깊은 경험을 쌓고 싶어서 연탄은행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여고 3학년 이재람 양은 "오래전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수능시험이 끝나 이제야 뜻을 이뤘다"며 기뻐했다. 서울 청원고 3학년 최유림, 박재성 군은 "앞으로도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싶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마을 주민인 오영숙(77) 할머니가 미리 준비한 따끈한 생강차는 자원봉사자들의 추위와 피로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할머니는 "연탄을 가져다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연탄불에 생강차를 끓여 놓았다"고 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생강차를 따라주던 할머니의 표정도, 무게 3.6킬로그램의 작은 연탄을 통해 사랑과 온정을 전하던 자원봉사자들의 눈빛도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연탄은행 Tel 1577-9044 www.babsang.or.kr

천상기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소장 기고

“자원봉사는 최고의 청소년 인성 교육”

청소년 봉사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올바른 인성 형성을 돕는 ‘봉사학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2008년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주된 이유로 59.4퍼센트가 ‘내신성적 반영을 위해’를 꼽았다.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자아 성장의 기회를 갖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점수화함으로써 이러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DB

2008년 라오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 청소년들.

하지만 봉사의 참의미인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보람을 찾고, 이러한 보람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례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이 방과후 수업을 받으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국비 지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열린 장학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자체적으로 ‘해피투게더’라는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성적 위해 시간 채우기식 봉사는 도움 안돼

아무리 어려워도 나눌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이들의 봉사는 대학입시나 취업을 위한 형식적인 봉사와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를 넘어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경험 많은 청소년 지도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점에 주목해 다양한 봉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수의 영국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참조하며, 영국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년 정도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고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흔하다.

미국은 ‘노인, 빈민가정, 환경, 교내자원봉사’의 4대 봉사 영역을 정해 필수 교과목과 연관시켜 봉사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활발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자원봉사 교육은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도 전국 16개 시도 활동진흥센터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연계해주고 있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 청소년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 경험이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인성 형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을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도와라.” 미국 월스트리트의 신화적 투자자이면서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존 템플턴 경이 한 말이다.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인격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경험하는 남을 돕는 보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등은 사회를 보는 안목을 더욱 넓고 깊게 해줄 것이며 이는 평생 봉사를 지속하는 힘이 될 것이다. G

서울시청 191개 부서 “봉사로 한마음”

‘서울시 나눔과 봉사단’은 서울시 1백91개 부서의 봉사 대표자 1백99명이 모인 봉사 동호회다. 서울동물원의 송정석 씨가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동물원에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얼마 전 산동네에 연탄 배달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에 연탄 4백 장을 쌓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여쭤봤더니 구석에 놓인 큰 물통 안에 쌓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빗물을 받아 쓰는 물통이라우. 덕분에 한 달 물값이 천 원도 안 나와. 이제 물값이 더 나올 텐데, 그래도 물보다는 연탄이 중하니…’ 하고 말씀을 흐리셨습니다. 그 순간 매일 샤워를 하는 제가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서울시 나눔과 봉사단’(이하 나눔과 봉사단)의 송정석(48) 대표를 비롯한 70여 명은 달동네 홀몸노인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때 만난 한 할머니의 말이 송 대표의 가슴을 울리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 봉사는 겉으로 보기엔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깨우쳐주는 행동이란 사실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눔과 봉사단은 지난해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뜻을 모았고, 올해 3월 정식 발족했다. 서울시 1백91개 부서의 봉사 대표자 1백99명이 뜻을 합쳐 재활용품 수거, 국가자격시험 감독을 자청해 받은 수당, 각종 상금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7개월간 모은 6백여 만원으로 연탄 4천여 장을 구입해 이날 10여 가구에 나눠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은 평일이라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봉사단 회원 중 70여 명이 월차를 내가며 참여해 더욱 뜻깊었다.

서울시 191개 부서 봉사 대표자 뜻 모아 봉사단 꾸려

나눔과 봉사단은 각 부서 봉사 대표의 모임이다. 따라서 행정 전문가부터 토목, 건축, 통신, 기계, 농림, 임업, 축산, 보건, 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연탄 배달 봉사 외에 집수리, 혈당 체크에 안경 세척과 수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나눔과 봉사단의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송 대표가 근무하는 서울동물원에서 매주 목요일 치매 노인이나 지체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초청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동물을 만지며 느끼게 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말하는 앵무새를 접촉하게 하여 소리를 느끼도록 한다. 치매 노인에게는 양몰이 체험장에서 양떼에게 먹이 주기, 지체장애인에게는 뱀을 목에 둘러보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며 즐거운 하루를 선물한다.

나눔과 봉사단은 2006년 송 대표가 동물원에서 쌓이는 사료 포대 등 재활용품을 팔아 지역의 어린이들을 동물원에 초대하는 나눔 행사에서 비롯했다.

이 나눔은 송 대표와 서울동물원의 독특한 인연이 계기가 됐다. 송 대표는 창경궁에 있던 동물원이 경기 과천시로 이전하기 전, 지금의 기린사 자리가 있던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동물원이 이전하면서 송 대표의 집터에 기린사가 들어선 것이다.

사진 나눔과 봉사단

서울시 나눔과 봉사단의 봉사활동 중 '동행'은 서울동물원에서 매주 목요일 소외계층을 초청해 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한다.

고교를 졸업한 후 서울동물원 직원모집 공고를 본 송 대표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는 기린을 돌보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력서를 냈고, 과거 목장을 한 경험을 인정받아 합격했다. 이후 소원대로 기린사 근무를 시작으로 동물 사육사의 길을 걷던 그는 마흔 살이 넘어 동물 사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대학원 축산과에 진학해 역시 우수 논문상을 받으며 졸업했다.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육사는 생명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내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뒤, 송 대표는 폐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장애인 단체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초청해 캥거루, 앵무새, 코끼리 먹이 주기와 돌고래쇼 관람, 아기동물 만져보기 등 동물원 투어와 커다란 돈가스 점심 등을 대접하며 즐거운 하루를 선물했다. 그의 선행이 공무원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함께 폐품을 모으기 시작했고, 서울시 나눔과 봉사단이라는 이름의 공무원 봉사 동아리가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우리 사회의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은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눔과 봉사단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눔을 실천했고, 앞으로 어떤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나눔이 우리 사회의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한결 같습니다. 비리 등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은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서울시 나눔과 봉사단의 '나눔 바이러스'가 전국 공무원을 넘어 전 국민에게 넓고 고루 퍼지기를 기대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동아DB

서울시 공무원들의 봉사 모임인 '서울시 나눔과 봉사단'이 11월 5일 서울 관악구 청림동 일대에서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선생님 덕분에 더 큰 세상을 꿈꿔요"

이웃 도움으로 희망 찾은 사람들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주는 풍경… 희망이 생겼어요"

선천성 시각장애어린이

초등학교 5학년 현민이(가명)는 태어난 날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선천성 시각장애아동이다. 학교를 마친 뒤 또래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현민이는 시각장애인가족회 공부방으로 간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있고, 컴퓨터와 점자 프린터도 있어 공부방은 현민이에게 최고의 놀이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형아 선생님'이 오는 날이면 현민이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진다. 현민이의 '형아 선생님'은 몇 달 전부터 공부방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대학생이다. '형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어렵기만 했던 학교 공부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사실 현민이가 '형아 선생님'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공부보다도 '형아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현민이에게 참 많은 세상을 보여주었다. 여행을 갔던 일이며, 세상 속에서 만난 값지고 소중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현민이도 같은 풍경을 보게 된다. 선생님이 보고 들은 풍경에 대한 감동이 목소리를 타고 현민이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진다. 늘 깜깜하기만 했던 세상에 빛이 스며들어온 것처럼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현민이는 꿈을 꾼다. 희망도 생겼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에도 가고, 선생님처럼 대학도 가고 싶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형아 선생님은 제가 꼭 될 수 있을 거래요."

"이젠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아쉽지 않아요"

지체장애인 한모 씨

지체장애를 지닌 한모(42) 씨는 몇 년 전부터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해왔다. 비싼 전동 휠체어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체력이 많이 달려 휠체어가 있다 해도 혼자서는 감히 외출을 생각할 수도 없다. 일용직인 남편은 그날그날 일하기 바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은 엄마의 외출을 돕기에는 힘이 많이 부치기 때문이다.

"한동안 많이 답답했죠. 병원에 한번 가려 해도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장애인 콜택시 수에 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예약 전화는 잘 연결되지 않았고 예약을 해도 시간 맞춰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예약시간을 놓치기 일쑤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조금씩 외출이 가능해졌다. 집 근처 복지관이 재가(在家) 장애인들에게 외출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복지관에 가는 것은 물론 시간 맞춰 병원을 오가는 일도 도와준다.

"지난 가을에는 복지관 분들과 같이 소풍 겸 나들이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출 지원만이 아니다. 한 씨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딸에게 과외 공부도 시킬 수 있다며 고마워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집에 찾아와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이지만 고마움만큼은 평생 잊지 않겠다는 한 씨는 나중에 딸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말은 없어도 오가는 눈빛으로 정이 쌓입니다"

노인요양원의 치매 · 노인성 질환자들

노인요양원에는 대부분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제는 어르신이라기보다는 덩치만 큰 아기 같은 사람들이다.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도 자주 부린다. 그 때문에 더욱 자원봉사자들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곳이 노인요양원이라 할 수 있다.

노인요양원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빛을 발한다.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인 만큼 식사, 산책, 목욕을 도와주는 노력봉사자에서부터 음악치료, 발마사지, 어르신들의 흥을 돋울 수 있는 국악 등의 전문 자원봉사자들까지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미용 자원봉사다. 이제는 주름진 얼굴에 퍼석한 머리카락일지언정 여전히 곱게 꾸미고 다듬는 것을 좋아하는 노인들에게 머리를 다듬고 얼굴을 만져주는 손길은 최고의 선물이다. 얼굴을 씻겨주고, 머리를 매만져주고, 작아지고 주름 진 발을 주물러주고, 등을 밀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잠시나마 작은 꽃 같은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비록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고마운 이를 향한 정다운 마음이 흘러넘친다.

"사랑의 도시락과 말벗 서비스, 고마워요"

홀로 지내는 송모 할머니

송모(76) 할머니는 홀몸노인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오래 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삶의 큰 버팀목이었던 할아버지도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다. 그런 할머니에게 근래 들어 가장 큰 낙은 매일매일 배달되는 '사랑의 도시락'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배달해주는 '사랑의 도시락'이 오는 시간이 할머니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라고 한다.

"밥 때문이 아니에요. 자리보전하고 눕지 않은 이상 밥이야 뭐, 혼자 어떻게 못 챙겨먹겠어요? 그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휑한 집에 하루 한 번씩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 사는 기척이라도 내주니 그게 반갑다는 얘기죠."

그런데다 요즘에는 전에 없던 딸과 손자, 손녀들까지 생긴 것 같아 더 기쁘다고 말한다. 때마다 잊지 않고 전화도 해주고 매달 한두 번씩 찾아와주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홀몸노인을 위한 말벗 서비스 자원봉사자들이다.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딸이나 친손자들처럼 살뜰하게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누고 가는 이들이다.

"고맙지요. 이 늙은이가 뭐 예쁘다고, 잊지 않고 챙겨주고 찾아와주는지 원. 지난번에는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새삼 딸 있고 손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낙에 사는구나 싶어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사랑의 도시락과 가족이 돼주는 말벗 서비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송 할머니는 올겨울을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날 것 같다고 말한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다른 이의 꿈을 키워주는 것만큼 보람된 자원봉사가 있을까. 무료 과외 연결사이트 이루미 관리자인 김도균 씨는 자신의 과외 제자가 자라나 이루미 교사가 되어 '대가 없는 지식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꿈이다.

어린이·청소년의 꿈 키우는 휴먼 네트워크

"멘터가 되어주세요"

꿈이 갖는 힘은 무궁무진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이란 더욱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된다. 파릇하고 여린 꿈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보았다.

무료 과외 연결사이트 '이루미'
대가 없는 지식의 선순환이 목표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고 더 나아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2007년 두 명의 고등학생이 만든 무료 과외 연결사이트 '이루미(erumi.kr)'가 바로 그것. 이루미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무료 과외봉사에 나선 선생님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물론 소개료도, 과외비도 무료다.

첫 설립자들이 유학을 떠나게 되어 이루미 관리를 물려받은 김도균(23·건국대 교육공학과) 씨 역시 이루미 선생님으로 활동 중이다. 도균 씨가 현재 공익근무요원 신분이라 수업은 주로 주말에 이뤄진다.

수업 장소는 김도균 씨의 학교 동아리방이나 카페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학교 구경을 하며 학습 동기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김도균 씨는 이루미 선생님이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과외교사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루미에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문화생활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같이 박물관이나 극장에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이나 누나처럼 인생 상담도 해주며 멘터 구실까지 겸해요."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고맙다는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면 기운이 솟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루미 회원 1만명 중 선생님은 겨우 8백50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곳에서마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파요."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소망은 과외 봉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루미가 필요로 하는 과외 봉사자는 이루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루미 헌장'에서 밝히듯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겸비한' 15세 이상 봉사자다.

"이루미의 목표는 '대가 없는 지식의 선순환'이에요. 가르칠 만한 능력과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루미 선생님으로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이 자라 또 이루미 선생님이 되는 것, 그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동두천시 '과외멘터링 서비스'
대학생과 청소년 1:1 연계로 신뢰도 높아

세종대 화학과 1학년 권건혁(20·경기 동두천시) 씨에게는 중학생 제자가 한 명 있다. 지난 8월부터 일주일에 하루 두 시간씩 이 제자에게 수학과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짬짬이 함께 축구도 하고, 고민을 상담해주기도 한다.

"공부에 흥미가 없던 아이가 요즘 진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 지켜보는 제가 뿌듯해요."

건혁 씨와 '개구쟁이' 제자가 인연을 맺은 것은 동두천과 인근 지역 대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대일 과외지도를 하고 멘터가 되어주는 동두천시의 '과외 멘터링 서비스' 사업 덕분이다. 시에서 과외지도 대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니 신뢰도도 높고, 체계적인 멘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실 민영경 씨는 "현재 29명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일대일 연계를 맺었지만 학생 수요가 많아 선생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공무원 '무지개 튜터'
신입 공무원 의무화로 참여도 높여

대전에서는 공무원들이 '무지개 튜터'를 통해 어려운 가정 학생들의 개인교사를 자처하고 있다.

대전시의 '공무원 무지개 튜터제'는 저소득 가정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대전시 공무원들이 학습 지도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공부와 인성교육까지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2007년 9월 46명의 무지개 튜터가 대전 동구 판암동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8개 동으로 대상 지역이 늘었다. 튜터 희망자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 마음도 자란다. 대전시의 '무지개 튜터'들과 초중고생 제자들은 공부는 물론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무지개 튜터 초창기 멤버인 대전시청 교통정책과 이명임(31) 씨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대가 없는 가르침이 주는 보람과 희열을 잊지 못해 올해 초 다시 무지개 튜터를 시작했다고 한다. "첫 제자가 가장 기억이 나요. 첫 제자를 맡으면서 영어 같은 과목은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지도했고, 함께 쇼핑이나 서점을 다니며 마치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무지개 튜터에 대한 호응이 높자 대전시는 신입 공무원들의 튜터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대학생이나 일반인들까지 튜터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휴먼네트워크 선도멘터포럼
장관·대학총장 등 저명인사 멘터로 나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장무 서울대 총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도 취약계층 자녀의 멘터로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월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과 미래 희망직업 분야의 인사를 '멘티와 멘터'로 연결해주는 '휴먼네트워크 선도멘터포럼' 발대식을 갖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장무 서울대 총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 기업,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스포츠계, 연예계 등의 인사 16명을 멘터 위원으로 위촉했다. 멘터 위원은 자신의 멘티인 아동, 청소년에게 전화로 혹은 직접 만나 상담하고 격려도 해주며 도움을 준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실 윤수현 씨는 "멘터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휴먼네트워크 확산을 독려하는 일도 맡고 있다"며 "청소년 희망직업군을 고려해 멘터 위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한진희 객원기자

이루미 erumi.kr
동두천시 Tel 031-860-2363
대전광역시 Tel 042-600-2187

사랑으로 먹고 사는 스타들 사랑을 되갚아야죠

바쁜 시간을 쪼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월드비전

가수 박정아는 에티오피아 등 빈민국을 상대로 한 육상 꿈나무 지원프로젝트의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탤런트 김혜수는 최근 네팔의 빈농지역을 방문해 기아로 고통 받는 가정에 쌀을 전달했다. 아래는 방송인 한성주와 김미화가 지난 8월 경기 광주시의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모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봉사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연예인을 꼽으라면 탤런트 김혜자(68)와 정애리(49)가 빠지지 않는다. 이들은 1992년과 94년에 각각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임명된 뒤 에티오피아, 잠비아, 북한, 아프가니스탄 등 기아와 전쟁으로 고통 받는 국가의 난민을 돕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탄은행'의 홍보대사이기도 한 정애리는 연탄배달 봉사에도 열심이다. 정애리는 "연탄 한 장이 없어 냉방에서 겹겹이 이불만 두른 채 지내는 한 할머니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가정이 전국에 10만 가구가 넘는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연탄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한성주(35)와 김미화(45)도 '선행 천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경기 광주시의 한사랑장애영아원을 찾은 이들은 아이들 돌잔치와 목욕, 식사를 돕고 함께 놀아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9월 출간한 책 〈꿈에 투자하라〉의 저작권료도 모두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한성주는 방송에서는 왈가닥처럼 보이지만 봉사활동에 임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들의 표정과 행동만 보고도 무엇을 원하는지 척척 알아맞힐 정도다.

4년 전 홀몸노인 방문을 계기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은 김미화는 언제나 맨얼굴로 봉사활동에 나선다. 할머니 앞에서는 귀여운 재롱둥이로, 아이들 앞에서는 푸근한 엄마로 변신하는 그는 어디를 가든 인기가 좋다.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 부족으로 아침식사 제공을 원하는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자 그가 "광고를 찍어 공돈이 들어올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1천만원을 기부한 일화는 지금도 훈훈한 감동을 준다.

굿네이버스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혜수(39)가 최근 네팔의 빈농지역인 꺼이랄리(Kailali)에서 보여준 활약도 눈부시다. 평소 나눔 실천에 관심이 많은 그는 빈곤 가정에 쌀을 전하고, 직접 아이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정성도 아끼지 않았다. 김혜수는 "이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보릿고개가 네팔에서는 현실인 모습을 직접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며 "네팔 아동들처럼 극심한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탤런트 지진희(38)는 11월 초 강원 홍천군을 방문해 직접 만든 반찬이 든 사랑의 도시락을 결식아동과 홀몸노인들에게 전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가수 박정아(28)는 에티오피아 등 빈민국을 대상으로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육상 꿈나무 지원 프로젝트의 '희망 전도사'로 맹활약 중이다.

이웃과 공감 나누는 스타들의 봉사활동

해비타트 홍보대사인 탤런트 이재룡(45), 유호정(40) 부부와 강부자(68), 이서진(36) 등은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봉사단장인 영화배우 박보영(19)은 단원들과 함께 아동복지시설과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기쁨을 전한다.

유년기를 힘들게 보낸 방송인 조영구(42)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공연, '사랑의 밥차' 등을 열고 있다. 마라톤 스타 황영조(39), 배구 스타 장윤창(49) 등은 스포츠봉사단 '함께하는 사람들(함사모)'을 통해 사랑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사모 회원들은 11월 말에도 인천지역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가정에 2만 장의 연탄과 직접 만든 자장면을 배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많은 스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아름다운 선행과 자선봉사로 되갚는 이들의 모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국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탤런트 채시라

"청바지 늘 챙겨 어디든 달려가요"

1999년부터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탤런트 채시라는 지난 10년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나눔 활동에 앞장서왔다. "봉사활동은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과 우리 사회까지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의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엿보자.

채시라는 11월 4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새로 짓고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벽화를 그렸다.

"연예인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특히 저는 데뷔 때부터 줄곧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제게 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그런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올해로 10년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채시라(41)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1984년 초콜릿 CF광고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방극장의 스타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했다.

하이틴 스타 시절부터 막연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에게 처음으로 기회를 열어준 건 1998년 최동철 아나운서였다. 최 아나운서는 당시 KBS 대하드라마 〈왕과 비〉에 출연 중이던 그와 탤런트 최종원, 임동진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서울 명동 가두모금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 일은 그가 이듬해인 1999년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계기가 됐다.

어린이·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돕기 10년 '귀감'

이후부터 그의 봉사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청바지에 티셔츠는 기본. 아이들을 돌보고 밀린 설거지와 식사 준비를 거들려면 편안한 차림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엄마의 사랑이 많이 그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팬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즐겁게 보내요. 한번은 부모가 있어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마침 추석 무렵이라 아이들과 같이 송편을 빚었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늘 즐거웠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를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프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보다 가슴 아팠던 일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심한 기형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중

증 장애아들을 돌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해요. 특히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심한 구타와 학대를 당해 몸과 마음 모두 상처투성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꼭 안아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데도 막힘이 없다.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엄마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겸손함을 보인다.

"내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복지시설의 아이들은 사람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꼭 안아만 줘도 금세 정이 들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내 아이 돌보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요"

지난 11월 4일에도 그는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인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을 찾아 희망의 벽화를 그렸다. 당시 그에게는 재충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8부작 대하드라마 〈천추태후〉에 몰두해 심신이 지친 탓이다. 그럼에도 그는 "드라마 촬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라며 기꺼이 벽화 그리기에 동참했다.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전국에 50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그중 하나인 석모도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인 이 지역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짓는 것이다.

"석모도는 영·유아 수도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나가 장사를 하더라고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주민들은 이번에 짓는 어린이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분들과 아이들이 보고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색칠했는데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는 벽화 한 귀퉁이에 섬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덕담을 새겼다. '씩씩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라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12일, 그에게는 또 하나의 직함이 생겼다. 사회적 기업 '위캔'의 홍보대사다. 위캔은 샬트르성바오로 수녀회에서 출연한 지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우리밀로 만든 수제 쿠키를 생산하고 있다. 홍보대사 위촉식을 치르기에 앞서 이곳의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쿠키를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그는 "먹기는 쉬웠는데 직접 해보니 쿠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이 만드는 과자라서 소비자들이 불신할까봐 그만

채시라는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복지시설 아이들을 항상 친자식처럼 정성껏 돌봐 주위를 훈훈하게 만든다.

큼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위캔 근로자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우리 사회에서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죽을 만드는 작업부터 쿠키가 완성될 때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근로자들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할 정도로 청결과 식품안전에 철두철미했어요. 그곳 근로자들은 몸이 좀 불편할 뿐, 마음은 누구보다 건강했어요. 다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전문가들이죠. 그날 큰아이도 데려가 함께 쿠키를 만들었는데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됐어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마음이 한결 밝고 맑아지는 느낌이라는 그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봉사활동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해요. 만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땀을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복지재단이나 가까운 복지시설의 문을 두드리세요.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은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지요." G

글 · 김지영 기자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지?

예전엔 자원봉사라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됐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365로 전화하거나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중구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은 11월 11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야콘 캐기 봉사활동을 했다.

"전에는 시장만 갔다 와도 피곤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강해졌어요.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보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한테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사는 강명순(56) 주부는 토요일이 즐겁다.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강 씨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홀몸 어르신 대상 무료진료에서 의료인 보조자로 봉사하고 있다. 중구 신당동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로 이사를 한 강 씨는 신당동이 고향 같아서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받고 재미가 있어서 중구자원봉사대학까지 마쳤다. 중구자원봉사대학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10주(20시간) 동안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봉사활동 교육은 물론 상상력과 자원봉사, 웃음치료 등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 씨는 그동안 의료봉사뿐 아니라 전남 장성에 가서 배 따기, 전북 무주에서 야콘 캐기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봉사활동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해온 강 씨는 내년에는 이웃 한 명이 함께할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봉사가 즐겁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리포터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정현(28) 씨도 처음에는 대학에서 봉사활동 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학점 때문에 시작했지만 재미가 있어서 졸업한 후에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촬영이라는 이차적인 봉사활동이라 봉사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행할수록 봉사도 하고 촬영도 하는 다원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많이 알려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 인식 크게 바뀌어

조 씨는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없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자연스럽게 몸담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전엔 자원봉사라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나고 재미있

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원봉사 교육기관인 볼런티어21의 '2008 전국 자원봉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의미 있는 여가를 보내고 싶다'거나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얻고 싶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들도 즐거움을 가미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Volunteering)와 오락(Entertainment)을 합친 '신나는 봉사!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를 캐치프레이즈로 '자원봉사 레디 액션' – 영화와 봉사의 만남, '해피 패밀리 볼런투어' – 가족여행과 봉사의 만남, '소녀시대와 함께하는 해피 볼런티어' – 팬미팅과 봉사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신은경 홍보간사는 "볼런테인먼트는 자원봉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힘은 들지만 행복해지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치이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또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볼런티어 액션데이'를 마련하고 있다. 월별로 다양한 주제의 봉사활동을 마련해 시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여름휴가를 이용한 봉사활동에는 1백명 모집에 5백명이 신청했을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신 간사는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1년에 하루쯤 시간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서 교육부터 현장까지 안내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전국 시군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2백48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며 필요한 곳에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원하거나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5로 전화하면 지역자원봉사센터로 연결된다. 또 전국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마다 홈페이지가 있어 좀 더 자세한 자원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는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이름을 쳐도 찾을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있지만 등록하지 않고 하는 이들이 더 많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좋은 점이 많다. 만의 하나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인정과 소속감,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홀몸노인들에게 땔감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에 등록하면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실적을 평생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어느 곳에서 한 봉사활동이든 마일리지로 적립되는데, 마일리지가 쌓이면 영화 시사회,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에 우선 초청된다. 특히 봉사활동 점수가 필요한 중고교생이나 대학입학 또는 취업 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 봉사활동을 했던 곳에 일일이 연락해서 각각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한 후 '자원봉사자 모집' 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아 '봉사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참여자 리스트에 등록하면 된다.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바로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 어디서나 1688–1090으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 관리센터로 연결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기관도 있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정보서비스'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은 이 사이트를 통해 봉사활동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봉사활동 신청,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까지 여기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 집 없는 가정에 '우리집'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 해비타트, 결식아동과 조손가정 등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는 월드비전, 저소득 및 결손가정 어린이를 돕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에서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www.kfvc.or.k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volunteer.seoul.go.kr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Tel 1365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Tel 1688-1090 www.vms.or.k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정보서비스 Tel 02-849-0404 www.dovol.net
한국해비타트 Tel 02-2267-3709 www.habitat.or.kr
월드비전 Tel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Tel 02-544-9544 www.kfhi.or.kr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피온, 라온아띠…

세계에 '봉사하는 코리아' 알려요

최근 해외로 자원봉사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이 선발하는 해외봉사단의 지원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정부의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인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피온 등 봉사 전문 민간단체와 기업의 해외봉사 기회를 소개한다.

#1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단원으로 선발돼 브라질에 파견된 오수진(23·한국외국어대 디지털전자정보과 3년) 씨는 현재 브라질 나탈지역의 기술전문학교에서 정보기술(IT)을 가르치고 있다. 오 씨에게 영어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이 학교 학생은 물론 교수와 전산관리 직원 등 3백여 명. 'IT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파견됐다는 기대감에다 전공을 살린 열강 덕분인지 강의 후에도 한국의 온라인교육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 등 반응이 뜨겁다.

#2 "소모초 지역에 우물이 생기니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건기가 몇 달이고 계속되는 곳이어서 우물이 없을 때는 어린아이들도 3킬로미터를 걸어서 물을 길러 다녀야 했으니까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물을 만들어야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마을 사람들과 우물 파는 데 매달렸습니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통해 동티모르에서 2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이창덕(28·지구촌나눔운동 사업팀 교육담당) 씨의 이야기다. 현지에서 해외봉사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이 씨는 귀국 후 국제개발 NGO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여름 행정안전부가 베트남에 파견한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이 학생들에게 정보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자원봉사의 손길을 해외로 넓히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주관하는 해외봉사단의 지원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여름방학 때는 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해외봉사단 선발의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기도 했다. 해외봉사를 원하는 연령층도 청소년부터 시니어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 단위 봉사단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과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 외에 여행 개념을 뒤섞거나 입시와 취업을 위한 이른바 '스펙(Spec)' 쌓기에만 열중하는 봉사단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봉사의 원래 뜻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해외봉사 기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구촌나눔운동 김민영 간사는 "우리나라 파견 단체와 해외봉사 단체가 동일한 경우가 바람직하며, 해외 파견 경험이 많은 단체인지 살펴봐야 하고, 실제로 다녀온 사람의 경험담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해외봉사 단체와 봉사활동 기회를 소개한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

정부 부처별 해외봉사단 통합… 전문 봉사단 보내

정부는 지난 5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봉사단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해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를 발족시킨 것을 계기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KOICA 해외봉사단, 행정안전부의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해외봉사단 및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단 등을 통합해 만든 단일 브랜드다.

올해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4천여 명. 2008년 2천59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4천여 명을 포함해 2013년까지 5년간 총 2만명의 해외 자원봉사단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 해외봉사단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KOICA다. 1992년 도미니카에 첫 봉사단원을 파견한 이래 최근까지 70개국에 6천7백여 명의 봉사단원을 내보냈다. KOICA를 통해 해외에 파견될 경우 주로 활동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봉사단 협력을 체결한 33개 개도국이다. 따라서 현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요청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에는 1천명

을 파견할 계획이며, 모집 시기는 1년에 10회 정도로 특정한 봉사 분야는 모집 시기가 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단기(1개월), 중기(12개월) 단위로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한다. 2009년에는 1개월 3백80명, 6개월 20명 등 4백명을 모집해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40여 개국에 파견했다.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 베트남, 모로코, 페루 등 14개 개도국에 파견되는 1백48명의 동계 청년봉사단은 인터넷 기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고급과정까지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동계 봉사단은 '디지털 한류' 전파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홍보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각각 2, 3주 또는 5개월 단위로 해외봉사를 떠난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 가입된 2백7개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참가 자격이 있다. 올해는 교육,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2천3백명의 봉사단원을 모집했으며, 이 중 1천3백여 명은 대학 자체로 프로그램을 수립해 해외봉사를 떠났다. 내년 1월 초 떠나는 겨울방학 봉사단은 이미 발대식을 마쳤으며, 내년에는 4, 5월과 10, 11월에 봉사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단의 경우에는 대학교수, 석·박사급 연구원, 과학기술계 원로 등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에는 49명이 선발되어 10월부터 1년 일정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 파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 2월에 파견할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12월 10일까지 모집했다. 만 14~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모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국제워크캠프, 코피온 등 10여 개 민간 봉사단체를 통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네팔,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로 주로 파견된다. 또 지방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단기 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한다. 지난 10월에는 2백40명의 청소년 단기 자원봉사단이 선발돼 9박10일 일정으로 라오스, 베트남 등을 다녀왔다.

민간단체·기업 파견 봉사단
매년 봉사단 선발해 지구촌 나눔운동 펼쳐

민간단체를 통한 해외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60여 곳이 가입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KOICA의 지원을 받아 연간 1백30명의 '한국 NGO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데, 이름 그대로 현지의 NGO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

코피온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연간 1천여 명의 해외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다. 세계 43개국 1백40여 개 NGO에 장·단기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현재 내년 2월 말쯤 파견될 봉사단원을 주니어(20~35세)와 시니어(36세 이상)로 나눠 모집하며, 서류 접수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1998년부터 매년 해외봉사단을 선발해온 지구촌나눔운동은 내년에 1주일, 6개월, 1년 등의 일정으로 2백30명을 모집해 동티모르, 몽골, 르완다 등지에 파견한다.

한편 기업체 후원을 받아 해외봉사를 떠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YMCA가 함께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 라온아띠'는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6개월 일정(국내 훈련 1개월, 해외 파견 5개월)으로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 6개국에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현대·기아차그룹이 후원하는 '해피 무브(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연간 1천명 규모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해외 경험을 갖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봉사단원으로 우선 선발해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이 밖에 포스코, LS전선, G마켓 등이 직접 지원 또는 후원 방식으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 G

글 · 최은숙 기자

정부와 주요 민간단체 파견 해외봉사단 (2009년 말~2010년)

KOICA 해외봉사단 (외교통상부, 코이카 www.koica.go.kr)
파견 국가 정부 간 봉사단 파견협력 체결한 33개 개도국
파견 인원 1000명 **파견 기간** 2년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파견 국가 중국, 베트나, 카자흐스탄 등
파견 인원 400~600명 **파견 기간** 1개월(단기), 12개월(중기)

대학생 해외봉사단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파견 국가 몽골,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등
파견 인원 2300~2500명 **파견 기간** 2~3주(단기), 5개월(중기)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교육과학기술부)
파견 국가 라오스, 몽골, 튀니지 등 **파견 인원** 30~50명 **파견 기간** 1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파견 국가 인도, 네팔, 캄보디아 등
파견 인원 212명(2010년 1, 2월 중), 하계는 미정 **파견 기간** 각 11~14일간

한국 NGO 해외봉사단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www.ngokcoc.or.kr)
파견 국가 케냐,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등
파견 인원 130명 **파견 기간** 1년 이상

해외봉사단 (코피온 www.copion.or.kr)
파견 국가 가나, 파라과이, 필리핀 등
파견 인원 1000여 명 **파견 기간** 10일, 3개월, 6개월, 1년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한국YMCA 전국연맹 www.raonatti.org)
파견 국가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등 **파견 인원** 90명 **파견 기간** 5개월

AP

2006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뉴올리언스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건축 자재를 나르고 있다.

김범수 교수 기고

선진국 자원봉사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선진국은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하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자원봉사 관련 조직들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국민들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상호 노력한 결과다.

"선진국의 자원봉사활동은 활발하고, 후진국의 자원봉사활동은 활발하지 못한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다"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의 자원봉사활동은 활발하고, 후진국의 자원봉사활동은 활발하지 못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원봉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과제다.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7천 달러에서 1만 달러에 도달할 때 각종 사회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산업공해나 환경문제, 실업자문제, 노사문제, 청소년문제, 장애인 및 노인 등 각종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 등이 급증하게 된다. 국가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급증하는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중진국 과정을 거쳐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천~8천 달러에서 계속 머물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국가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 남미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 해결에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유해왔다.

선진국의 자원봉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매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인건비로 계산하고, 후원하는 총금액을 산정해본 결과 미국 전체 예산의 5퍼센트에 해당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해보면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은 보편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자원봉사활동도 하루아침에 활발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를 보면 이들 나라

도 끊임없이 자원봉사 관련 조직들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권유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유하는 선진국

필자는 2004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년을 지낸 바 있다. 1년여의 미국생활을 하면서 '왜 미국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다.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얻은 결론은 미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원봉사활동을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ask)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발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왔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자원봉사활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권유해온 것이다.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정책과 민간의 참여가 상호 조화를 이룬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강압적인 정책만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자원봉사활동이 발전해온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을 향한 자원봉사의 제도적 권유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을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들은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자원봉사의 권유정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을 함께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은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전개해왔을까.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60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창립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들 수 있다. 평화봉사단은 저개발국가의 교육, 빈곤, 기술개발, 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창설됐다.

둘째, 1964년 존슨 대통령은 국내 평화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를 조직했다. 평화봉사단과는 다르게 1950년대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됐다.

셋째는 1967년 뉴욕시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은퇴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RSVP·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이다. 1969년에 합법화된 이 프로그램은 학력, 소득, 경험 등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이나 사적 민간조직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1990년 5월 부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설립된 촛불재단(POLF · Point of Light Foundation)이다.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이 제정된 이후 이 재단은 당시 자원봉사 전국협의회인 볼런티어(VOLUNTEER)와 통합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자원봉사자를 확산시키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밖에도 ACTION, 대학생자원봉사단, 미국봉사단 등 많은 자원봉사 관련 단체가 조직되어 일반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권유해온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입학시험이나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할 때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자원봉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는 측과 이를 받아들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이 뜻을 같이해 서로 호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사자성어에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것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자가 서로 해결해나가려고 할 때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다. G

글 · 김범수(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아DB

미국 워싱턴 외곽 14번가에 있는 비영리단체 '마르타즈 테이블'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의 폴란드 방문기

"중부 유럽 관문… 원전 등 세일즈외교 펼쳐"

폴란드는 한국과 비슷하다.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이를 국민들이 이겨냈고,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를 사랑한다. 한국과 폴란드의 교류를 통해 양국이 서로 저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강승규 의원과 함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1월 중순 폴란드를 다녀왔다.

동아DB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이 많아 앞으로 점진적인 친선교류가 기대되는 나라다. 이곳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 거리다.

멀고도 가까웠던 폴란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1980년대 중부 유럽의 공산국가였던 폴란드는 우리에겐 멀기만 했다. 바웬사로 대표됐던 '솔리다르노시치' 민주화운동은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겐 오늘의 폴란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 폴란드의 이미지는 2002년 월드컵 첫 경기 한·폴란드전에서의 폴란드의 쓰라린 패배였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폴란드에게 그렇게 '밉고도 가까운 나라'로 다가서고 있다.

11월 15일부터 2박3일간의 짧은 대통령 특사 일정 기간 동안 폴란드는 중부 유럽의 관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EU) 상임의장국 선출을 목전에 둔 때여서 카진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은 불발로 끝났지만 시코르스키 외교장관은 EU 외무장관 회담 참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특사 일행을 맞이했다.

한·폴란드 수교 20주년을 맞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폴란드 공고르 합참의장, 코롤레츠 경제부 차관 등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준재 주 폴란드 대사는 "과거 바르샤바동맹군의 심장부에서 수교 2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폴란드 '빅3 투자'… 국책사업 논의

오늘의 폴란드가 우리에게 감상에만 머무를 수 없음은 바쁘게 이어진 특사 일정에서 엿볼 수 있었다. 시코르스키 외교장관, 이준재 대사의 환영사부터 특사 단장으로서 나선 본인의 답사까지 모두의 화두는 양국 간의 3대 현안이었다. T-50 고등

훈련기 도입, LNG 터미널 건설, 원전 건설 등 폴란드의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 논의였다.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만난 파베우 비피흐 대통령 사회정책 수석과의 면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폴란드의 '빅3 투자' 건은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경제, 국방, 건설 분야에 걸친 이 사업에 양국 민관 관계자가 총체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특사의 명분도 한·폴란드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론 대통령 특사 및 의원외교를 통한 협상지원 성격이 강했다.

물론 양국 간 무역이 수교 당시 1억2천5백만 달러에서 2008년 44억 달러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LG전자의 LCD 유럽 수출 전진 생산 공장, 삼성전자의 4백60명 규모 모바일 및 셋톱박스 연구소가 이곳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중부 유럽 전진기지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류·협력 전략 재점검… 국가브랜드 높여야

T-50 고등훈련기 도입을 둘러싼 대한민국, 이탈리아, 핀란드 간 3파전에 대해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는 50퍼센트의 가능성이었다. 공고르 합참의장은 이탈리아가 신종 고등훈련기, 핀란드가 호크기를 제시하며 고등훈련기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F-16 전투기와의 호환 가능성 등 성능도 중요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및 재정·금융 지원조건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에 대해 우리 특사 일행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이고 앞으로 10여 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임을 들어 '원전 선진국'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코롤레츠 경제부 차관은 에너지의 95퍼센트를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폴란드가 탄소 배출 제한 등 지구촌의 기후변화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원전 1기, 2025년까지 2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엄격한 EU 기준을 강조했다. 이준재 대사를 비롯한 우리 측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프랑스가 필사적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 쉽지 않은 교섭이 예상된다.

LNG 터미널의 수주 가능성은 50퍼센트를 넘어 보였다.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며 LNG 터미널 건설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폴란드 측 관계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나이데르 외교부 차관은 "한국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지만 공개입찰을 통해 엄정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 각종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국민적 저력을 공유하고, 축구와 문화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기반으로 폴란드와 교류와 협력을 넓혀갈 전략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폴란드 측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에 주목하는 반면, 우리 측은 대(對)폴란드 수출의 대부분이 LG LCD 생산 등에 필요한 자본재와 부품으로 오히려 폴란드의 고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T-50 고등훈련기 수출, 원전 및 LNG 터미널 수주 등에는 성능 및 가격 같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다. 대한민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만큼 각 분야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방, 과학기술, 건설 부문에 문화와 스포츠가 융합돼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효과가 산술적인 증가를 넘어 기하학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특사 일행을 맞이한 안제이 할리츠키 하원 외무위원장, 두트카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장 등 많은 폴란드 관계자가 특사 일행과 면담하는 내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스포츠 분야 등에 걸친 폭넓은 교류를 강조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비피흐 폴란드 사회정책 수석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11월 16일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양국 수교 20주년 기념 만찬회에 1964년 도쿄올림픽 200미터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폴란드의 스포츠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셰빈스카 IOC 위원을 비롯해 외교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실 및 외교부 간부가 대거 참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폴란드인들은 대한민국이 쇼팽을 남다르게 좋아하는 것이 역사적, 정서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10 남아공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해 폴란드인들이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 폴란드 축구와 한국 축구가 다시 한 번 만나 '어게인 2002년 월드컵'을 벌이고, 대한민국과 폴란드 공연장에서 국악과 쇼팽이 만나는 감동 음악회가 펼쳐진다면 양국 간에는 다양한 교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G

글·장윤석(한나라당 국회의원)

KTV 다큐멘터리 〈자전거 오딧세이-외나로도에서 온 노래편지〉

“자전거는 내 친구, 나의 보물이야”

한국정책방송(KTV)은 12월부터 ‘2009 킬러콘텐츠’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선보인다. 첫 프로그램은 12월 24일 방영되는 크리스마스 특집 다큐멘터리 〈자전거 오딧세이-외나로도에서 온 노래편지〉로 아이들과 자전거의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감각적 영상과 음악 그리고 시로 담아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섬을 달리며 고향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다큐멘터리 〈자전거 오딧세이-외나로도에서 온 노래편지〉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통해 동심(童心)을 느끼고 자신들의 고향인 섬을 둘러보며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꿈에 관한 이야기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아주 특별한 섬이다. 이곳에는 열일곱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아주 작은 학교가 있다. 봉래초등학교 봉래남분교다. 한때 학생 수가 7백여명에 달했던 봉래남분교는 이제 폐교가 될 운명에 놓여 있다.

봉래남분교의 17명 아이들 가운데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는 3명뿐이고, 나머지는 홀어머니나 홀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렵게 살고 있다. 도회지에서 땅끝 섬으로 와야만 했던 아이들에게 섬의 어른들은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봉래남분교의 살아 있는 역사인 팔순의 전직 교장선생님, 듣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화가 할아버지, 바다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뱃사람 재강이 할아버지 등 어른들과 아이들의 만남은 그래서 더 소중하다.

이제는 우주센터만이 희망인 섬, 우주와 만난 외나로도 아이들은 집 앞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 어떤 꿈을 꾸었을까?

카메라는 감각적인 앵글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냈다. 특히 작곡가 노영심씨가 테마음악을 작곡한 것을 비롯해 전반적 음악작업을 담당하여 아름다운 영상과 멜로디가 하모니를 이루었다. 거기에 아이와 친구가 된 자전거, 그리운 가족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을 동요(童謠)로 담아 감동과 작품성을 더했다. 또한 작가 한소진 씨가 사색적으로 풀어내는 내레이션과 시는 아름답고도 외로운 섬 ‘외나로도’ 현실을 서정적인 울림으로 전하며 보는 사람에게 섬과 바다의 존재 그리고 공생(共生)하는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어느 날 봉래남분교 아이들에게 자전거 17대가 선물로 도착한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태규 원장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다. ‘섬마을 소년’이었던 이 원장은 자신이 태어난 섬인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도 수십 대의 컴퓨터를 선물했다.

아이들은 넘어지고 깨지면서 하나둘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다.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한 아이들 중에서 지석이가 가장

못 탄다. 지석이는 힘들고 자신이 없어서 친구가 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해도 거절한다. 어느 날 3, 4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은 랜스 암스트롱의 동영상을 본다.

"원래 자전거를 잘 타는 선수였는데 중간에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리면 많이 아프겠죠? 그런데 어려운 치료를 다 이겨내고 그 후에도 제일 어려운 코스에서 일곱 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

선생님의 물음에 아이들은 "자전거를 끝까지 노력하자" "힘든 일을 포기하지 말자"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지금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면서 지석이를 바라본다. 그날 자전거를 끌고 집에 간 지석이는 컴퓨터로 랜스 암스토롱을 찾아본다.

봉래남분교 아이들의 일상 카메라에 담아

자전거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된다. 아이들은 자전거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비밀을 털어놓기도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주현이는 자전거에 막내 동생을 태우고 엊그제 서울로 떠난 아빠를 기다리고, 목경이는 자전거에게 편지를 쓴다.

"너 때문에 한결 건강해진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내가 많이 넘어져서 네가 많이 다치고 아프잖아. 반성하고 있어. 나중에 너를 깨끗하게 닦아줄게. 예쁘게 스티커도 붙여주고 소중하게 여길게. 내가 잘 넘어지지 않게 주의할게. 넌 나의 친구, 나의 보물이니까."

어느덧 자전거를 잘 타게 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섬 탐험을 떠난다. 힘든 오르막과 시원한 내리막을 지나고, 자전거 체인이 빠지고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고향의 아름다운 바다와 오솔길을 발견한다. 지석이는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요한에게 외친다.

"형!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야 지석아! 자전거가 이렇게 달리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우주센터를 지나 목표했던 마을 끝 빨간 지붕 집이 나타나자 아이들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쁨과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이들은 말한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여기에서 시작할게요."

아이들에게 자전거와 함께했던 초등학교 시절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외나로도 아이들에게 자전거는 친구이자 꿈으로 데려다주는 '로켓'인 것이다.

"내 보물 1호 자전거는요, 로켓처럼 빨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G

글 · 이혜련 기자

KTV의 크리스마스 특집 다큐멘터리 〈자전거 오딧세이-외나로도에서 온 노래편지〉의 장면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우주센터를 지나 섬을 돌면서 소중한 추억과 꿈을 갖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제 34 화
마을회관
글·이연수 그림·이호

와글와글
경축!
순박리 물 깨끗이 쓰기
시범마을 지정!

현대생활에서 세제 안 쓰고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이다요?
순박

제대로 된 하수처리시설도 안 지어놓고 우리같이 힘없는 주부들에게 책임을 죄다 뒤집어씌우면 안 되지라~
!!

일리 있는 말이제.
빗물, 하숫물 구분도 없이 다 강물에 쏟아뻔지게 해놓고선….
웅성웅성
아무리 적게 써도 그게 다 강물에 모여불면….

다 같이 궐기해야 쓰겄소!

벌써 회의 끝나부렀냐?
드르륵

알뜰살뜰 살았더니 오염주범 웬말이냐
쯧 쯧
하수처리 확충않는 지자체는 각성하라

야,
신문 못 봤냐?

이번에 하수처리시설을 겁나게 늘린다고 해쌌던디. 거시기 750곳이라 했나?
뭣이다요~
흐미~
참말이어라?

하수처리시설 짓는다고 환경이 거저 살아나는 건 아니제~
풀썩

설거지할 때 쌀뜨물이나 밀가루를 풀어 쓰랑께~
빨래 헹군 물도 그냥 버려불지 말고….
와글와글
경축!
순박리 물 깨끗이 쓰기
시범마을 지정!
야, 거시기 빨래는 삶지 말고 비닐봉다리에 넣어 햇볕에….
마을회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불면….

마포문화재단이 육성하는 직장인 밴드 '튜스토리'. 왼쪽부터 윤보현(기타), 신동수(드럼), 이동환(베이스) 씨.

정경택 기자

마포문화재단 직장인 밴드 '튜스토리'

"올 성탄절 선물은 마흔아홉 생애 첫 공연"

1980년대 대학가요제에 반해 무작정 밴드를 꾸렸던 대학 동창생 셋이 쉰이 다 된 나이에 다시 뭉쳤다. 마포문화재단의 직장인 밴드 육성 프로젝트 첫 록밴드가 된 '튜스토리' 멤버가 그들이다.

"멈추지 말아요 강물이 흐르듯~ 사랑을 하세요 고독한 마음을~" 갑작스런 한파에 차도 사람도 종적을 감춘 11월 17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의 한 지하실. 굵직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멈추지 말아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내 록밴드인 '무당'이 1983년 발표한 곡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흔아홉 동갑내기 윤보현(자영업), 이동환(종합유선방송기업 직원), 신동수(두산건설 고객서비스팀) 씨. 메인 보컬을 맡은 윤 씨의 노래에 맞춰 이 씨의 베이스와 신 씨의 드럼 연주가 라이브로 울려퍼졌다.

81학번 대학 동창인 이들은 1980년대 대학가를 강타한 '대학가요제'에 반해 무작정 밴드를 꾸렸다. 하지만 각박한 현실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밴드를 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각각 군대로, 직장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하지만 이들 삼총사의 음악에 대한 욕심은 꾸준한 개인 연습으로 이어졌다. 신 씨는 군대에서 드럼을 배웠고 취직 후 여유가 생긴 윤 씨와 이 씨는 통기타 대신 전자 기타를 잡기 시작했다.

열정 하나만 믿고 다시 모였지만 당시만 해도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초년병 시절이었다. 이 씨와 신 씨가 각각 직장일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결국 밴드는 1년 만에 또 한 번 해체를 겪었다.

이들이 다시 모인 건 어느덧 마흔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 오랜만에 모인 김에 소주 한 잔 하던 중 슬그머니 밴드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아마추어 밴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즐거운 인생>이 한창 화제였을 때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밴드는 부활했다.

2007년 윤 씨 소유의 개인 사무실 한구석에 앰프와 드럼 등 시설을 갖춰놓고 무작정 독학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퇴근 후 저녁 8시마다 모이자는 약속과 함께 밴드 이름은 '튜스토리'로 지었다. 튜즈데이 스토리, '화요일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대학 동기 3명 의기투합… 12월 전문 공연장서 첫 공연

음악을 하다 보니 더 큰 욕심이 생겼다. 늘 바쁘다고 섭섭해 하는 가족들에게 근사한 공연을 선보이고 싶었다. 이들이 마포문화재단이 모집한 '직장인 밴드 육성 프로젝트'에 도전한 이유다. 이들은 지난 10월 마포문화재단이 실시한 직장인 밴드 육성 프로젝트에 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한 달 동안 전문 강사와 연습실을 제공받게 됐다.

11월 17일 저녁 멤버들은 윤 씨의 사무실이 아닌, 방음 및 음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이곳 전문 연습실을 처음으로 찾았다. 또한 홍대의 유명 프로 밴드인 '와이넛'으로부터 일대일로 잘못된 음정과 연주를 바로잡고 어색한 무대 매너 등을 교정받고 있다. 그리고 12월 19일엔 전문 공연장인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생애 첫 공연을 펼친다.

"부인이랑 아이들에게 그간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사실 어쩌면 쑥스러워서 못 들려줬던 노래를 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낌없이 들려줄 겁니다." G

글 · 김지현(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일러스트 · 이우정

장원급제 3代 '정승'의 恨을 풀다

조선 최초로 한 집안 3대(代)가 장원급제한 이들이 김천령(金千齡)–김만균(金萬鈞)–김경원(金慶元)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한 명도 정승이 되지 못했을까?

1496년(연산 2년) 병진(丙辰) 식년시에서 장원급제한 김천령은 고속승진을 거듭해 홍문관 부응교를 거쳐 사헌부 집의(執義 · 종3품)에까지 오른다. 실록은 그에 대해 "자기 의사를 밝힐 때는 경전(經典)에 근거하여 명백하고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임금의 뜻을 크게 움직였다"고 평한다. 그러나 1503년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이듬해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켰을 때 김천령은 직간(直諫)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한다. 김천령은 중종반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된다.

아버지 김천령이 장원급제할 때 두 살이었던 김만균은 1528년(중종 23년) 별시(別試)에서 장원급제한다.

김만균도 아버지의 깐깐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장원급제자답게 세자시강원 사서(司書 · 정6품)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3년 후인 1531년(중종 26년) 홍문관 수찬(修撰 · 정6품)으로 있을 때 당시 최고의 권력 실세인 김안로를 탄핵했다가 관직에서 쫓겨났다. 1537년 김안로가 축출되자 다시 관직에 기용되어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치며 승진을 거듭해 1544년 예조참판에 오르고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내지만 결국 중추부 동지사(종2품)로 재직 중 세상을 떠났다.

그에 관한 실록의 졸기(卒記 · 사후 인물평)가 인상적이다. "젊었을 때는 경박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장성하자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깨달아 끝내는 중후한 사람이 되었다." 이 졸기가 사실이라면 김만균은 판서는 물론이고 정승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5세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나 아들 모두 단명(短命)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1553년(명종 8년) 김만균의 아들 김경원이 계축(癸丑) 별시에서 장원을 차지한다. 그런데 실록은 당시 장원을 차지한 김경원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다. "성적 평가가 정밀하지 못하여 학문이 없는 김경원이 장원을 했다."

이후 김경원은 사간원 정언(正言 · 정6품), 지평(持平 · 정5품)으로 승진하는데 1560년(명종 15년) 그가 지평이 됐을 때도 실록 사관의 평은 인색하다. "성품은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으나 행실은 거칠고 비루했다. 요행히 과거에서 첫 번째로 뽑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때 권신(權臣) 이양에게 아부했다고 나온다. 이양에게 기댄 김경원은 이후 사헌부 장령(掌令 · 정4품)을 비롯해 홍문관, 사간원 등 핵심 요직을 거친다. 이미 권력의 맛을 본 김경원이었기에 동료 관리들의 평이 좋을 수 없었다. 계속되는 그에 관한 혹평도 실은 그와 무관치 않았다. 결국 김경원은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끝으로 관직생활에서 물러나게 된다.

한편 김경원의 동생 김명원(金命元)도 형보다 8년 늦은 1561년(명종 16년) 문과에 3등으로 급제한다. 그의 문과 급제 동기 중에는 훗날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산해(李山海), 황윤길(黃允吉)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문과 3등 김명원, 초고속 승진 끝 정승 올라

퇴계 이황에게 학문을 익힌 바 있는 김명원은 문무겸전(文武兼全)에 인품까지 타고난 인물이었다. 문과 급제 이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 1584년 형조판서에 오르고 1589년(선조 22년) 의정부 좌참찬 겸 의금부 지사로 있을 때 정여립의 난 수습에 공을 세워 평난공신 3등에 책록된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팔도도원수로 한강 방어에 실패하지만 이후 전란수습에 공을 세워 6조 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우의정, 좌의정에 올라 '3대 장원급제 집안'의 정승이 되지 못한 한(恨)을 풀었다.

김명원은 인품 또한 출중했다. 보통 〈선조실록〉에서 극찬하는 인물에 대해 〈선조수정실록〉은 혹평을 하게 마련인데 김명원은 예외다. "김명원에 대해 시류에 따라 부침했다는 비방이 있으나 풍도(風度 · 풍채와 위엄)가 뛰어나 모두 재상의 그릇이라고 일컬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68세까지 살았으니 정승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G

불행과 친하게 지내기

글과 그림·최영순

불행(병)의 원인은 늘 나 자신에게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한 법인데 어찌 그림자를 한탄할 것인가? 그러므로 치료 또한 내 마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을 평화롭게 고쳐나간다면 그대의 표정도 평화롭고 화애로워질 것이다.

– B. 파스칼의 <팡세> 중에서

12월 10일 신세계백화점에서 햅쌀막걸리 '막걸리 누보' 출시 기념 행사가 열렸다. 햅쌀막걸리를 사는 시민들.

조영철 기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술 막걸리

햅쌀로 빚은 '막걸리 누보' 첫선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10일 막걸리 제조업체 34곳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 국산 햅쌀막걸리인 '막걸리 누보'를 출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월 9일자에서 한국의 막걸리 열풍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막걸리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2월 10일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에서 '막걸리 누보'의 전국 대형 유통망 출시를 기념한 행사가 열렸다. 방문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부사장,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햅쌀막걸리를 담은 술독 개봉식, 막걸리 칵테일쇼, 시음회, 할인판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순당, 서울탁주, 우리술 등 34개 막걸리 제조업체가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 일제히 국산 막걸리 누보를 출시한 것을 기념한 것이다. 막걸리 누보는 올해 나온 쌀로 빚은 햅쌀막걸리로, 당해 수확한 포도로 빚은 햇포도주인 '보졸레 누보'에서 본뜬 이름이다.

올해 막걸리 누보가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 11월 19일. 보졸레 누보 출시에 맞춰 일부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막걸리 누보를 출시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출시 당일 백화점업계의 막걸리 누보 판매량이 보졸레 누보 판매량의 10배를 기록했고, 일부 백화점에서는 재고량이 모두 동나 사전 예약을 받을 정도로 각광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조업체에서 내년 2월까지 2009년도 햅쌀 약 1천2백11톤을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막걸리의 인기는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2월 9일자(상자기사 참조)에도 보도됐다. '한국이 생막걸리에 푹 빠졌다'는 큰 제목 아래 막걸리 열풍을 소개한 것이다. 기사는 첫머리에서 막걸리 누보가 출시됐을 때 큰 인기를 모았으며, 막걸리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0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오찬에서 와인 대신 막걸리로 건배한 점도 부각하면서 막걸리 소비 확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걸리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실었다.

'전통주 막걸리의 재발견'은 연말을 앞두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국내 트렌드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헬스조선'은 올해 건강 10대 뉴스 중 하나로 막걸리의 인기를 꼽았다. 12월 10일자 <조선일보>는 "(2009년에는) 전통주 막걸리가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다"고 하면서 올해 최고의 술로 인정받은 이유로 "막걸리 속 트립토판과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지방이 몸에 저장되는 것을 막고, 주원료가 쌀과 밀이기 때문에 다른 술과 비교해 포만감이 많아 적은 양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막걸리가 다이어트식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한식 세계화 발맞춰 외국인 입맛까지 사로잡아

막걸리는 친환경 술이라는 점에서 12월 10일 환경재단이 선정한 '2009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막걸리는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서민주'일 뿐 아니라 수입 주류에 비해 온실가스도 덜 발생하고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효자 역할도 톡톡히 했기 때문이라는 게 수상 사유다. 막걸리는 특히 '환경·기후변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이유로 환경재단 측은 "국내 제조 술은 제조과정이 단순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수입 술에 비해 운송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적게 발생하므로 환경친화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한식 세계화와 함께 우리 술을 세계적인 명주로 육성하겠다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 육성을 목표로 5대 중점 추진 전략을 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 고급화를 위한 양조 전용 품종 개발 보급 및 연구개발 강화 △전통주의 복원과 전문인력 양성 △한식 세계화 연계 홍보 마케팅 △지역 특산주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도주 위주의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추진 등이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술 시장에서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퍼센트(1천6백4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막걸리와 약주를 포함한 전통주 시장을 10퍼센트대로 끌어올리고, 수출액도 2008년 2억3천만 달러에서 2017년에는 10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조영철 기자

올해 수확된 햅쌀로 빚은 막걸리들.

<아사히신문>에 소개된 막걸리 열풍

"한국, 생막걸리에 푹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10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에서 쌀막걸리로 건배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12월 9일자 국제면에는 '한국이 생막걸리에 푹 빠졌다'는 제목 아래 한국의 막걸리 열풍이 상세히 보도됐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이 작성한 이 기사는 '여성과 젊은이들의 피부에 좋고, 마시기 쉽다'는 중간 제목 아래 막걸리가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과 여성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쌀 소비 촉진 및 한식 세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먼저 '햅쌀 사용 막걸리 누보 각광'이라는 중간 제목 아래 막걸리 누보 출시 현장과 막걸리 서비스가 개시된 국제선 항공기, 막걸리 박람회 등을 스케치하면서 "지난 11월 19일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의 특설코너에서 프랑스 '보졸레 누보' 출시에 맞춰 햅쌀로 만든 '막걸리 누보'가 화제다. 주말에만 4백 병이 판매되었고 전년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판매에 힘입어 막걸리 판매장이 새로 신설됐다. 또한 11월 16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한~일노선에는 탄산이 없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특별 막걸리 서비스가 시작됐다. 또한 19~22일 서울에서 열린 막걸리 박람회에는 전국 150종류의 지역 막걸리가 출품되어 4만명 이상이 모여드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막걸리 붐으로 인해 '국순당'의 경우 5~11월간 전년 동기 대비 15배 성장한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10월 생산량은 약 16만3천 킬로리터로 전년 동기 37.8퍼센트가 증가했다는 한국 통계청의 수치를 인용했다.

막걸리가 한식 세계화와 국가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등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 스케치도 담았다.

'지난 10월 9일 서울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막걸리로 건배했다. 외국 정상과의 외교에서 와인을 대신해 한 병에 1천엔도 안 되는 막걸리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일본 총리 부부는 "이대로 막걸리로 합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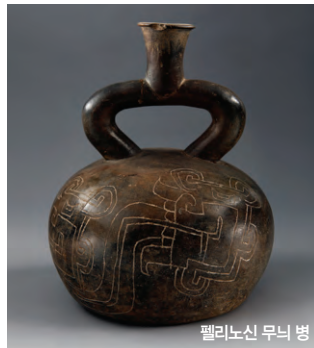
막걸리 소비 확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한국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쌀 재고량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쌀막걸리 제조가 촉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금의 제국 '잉카'를 만나다

특별기획전 '태양의 아들, 잉카'

일시	2010년 3월 28일(일)까지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성인 1만원, 중고생 9천원, 초등학생 8천원, 유아 6천원, 장애인 무료
문의	02-2077-9276 www.museum.go.kr

장례행렬 모형

귀걸이

펠리노신 무늬 병

국립중앙박물관은 12월 10일부터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과 한·페루 문화협정 체결 20주년을 기념하는 잉카 문명전 '태양의 아들, 잉카'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유물은 페루의 안데스 고대 문명부터 1532년 스페인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할 때까지의 잉카시대 유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페루 전역에 있는 국립고고인류역사학박물관, 라르코에레라박물관, 시판무덤박물관, 마추픽추박물관 등 9개 박물관 소장 유물 3백51점을 엄선했다. 이 중 세계문화유산 마추픽추에서 출토된 유물 13점과 20세기 세계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인 시판왕 피라미드 출토 유물 41점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것들이다. 또한 안데스 고대 문명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토기들과 이집트 미라와는 다른 안데스 미라의 실제 모습도 볼 수 있다.

전시는 문명사의 흐름에 따라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기원전 3천년 안데스 고대 문명의 신화와 전설을 다룬다. 2부는 페루 전역에서 일어났던 안데스 고대 문명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3부는 황금의 제국, 잉카를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 은화수 학예연구관은 "잉카의 사회구조와 종교, 통치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잉카의 주요 유적과 공중의 도시 마추픽추, 우주의 배꼽으로 여겼던 잉카의 수도 쿠스코의 실제적인 모습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잉카 문명의 진면목을 관람객에게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나스카 지상화와 시판왕 무덤 발굴 영상을 특별히 상영한다. 아울러 이번 전시와 연계된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잉카 문명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

글 · 김지영 기자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일시	12월 18일(금)~24일(목)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8만원,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5천원
문의	02-580-1300 www.sac.or.kr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캐릭터와 인형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화려한 테크닉의 춤이 가득한 발레 공연. 러시아 태생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안무가라는 찬사를 받는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를 맡았다. 마임이나 단순한 동작이 많았던 기존 버전과는 달리 빠른 회전과 높은 도약과 같은 고난도 묘기에 가까운 춤동작이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또한 무대장치처럼 끊임없이 대열을 바꾸는 군무진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연극 '둥둥 낙랑 둥'

일시	12월 22일(화)~27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1588-4115~6 www.ntok.go.kr

국립극단이 2006년 '태(胎)'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국가브랜드 공연으로 최치림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자명고' 설화를 소재로 최인훈 작가의 천재적인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빚은 작품이다. 작가는 호동의 의붓어머니와 낙랑공주가 쌍둥이라는 설정을 통해 호동과 공주가 만난 문제를 더욱 애절한 상황으로 끌고 가며 사랑을 향한 욕망의 끝이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행복4江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대학생의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사회인의 능력으로 상환합니다

호텔조리학과 **최원준군**에게 빌려주고
한식조리사 **최원준씨**에게 받습니다

경영학과 **김다영양**에게 빌려주고
해외펀드매니저 **김다영씨**에게 받습니다

항공기계과 **정건우군**에게 빌려주고
항공정비사 **정건우씨**에게 받습니다

반갑다 『든든학자금』

2010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출학자금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걱정없이 -
-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
-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

이제, 등록금 걱정없이 꿈의 전원을 항상 켜두세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대출대상 : 소득7분위(2009년 2학기 기준 연 소득인정액 4,839만원) 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2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상환방법 :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